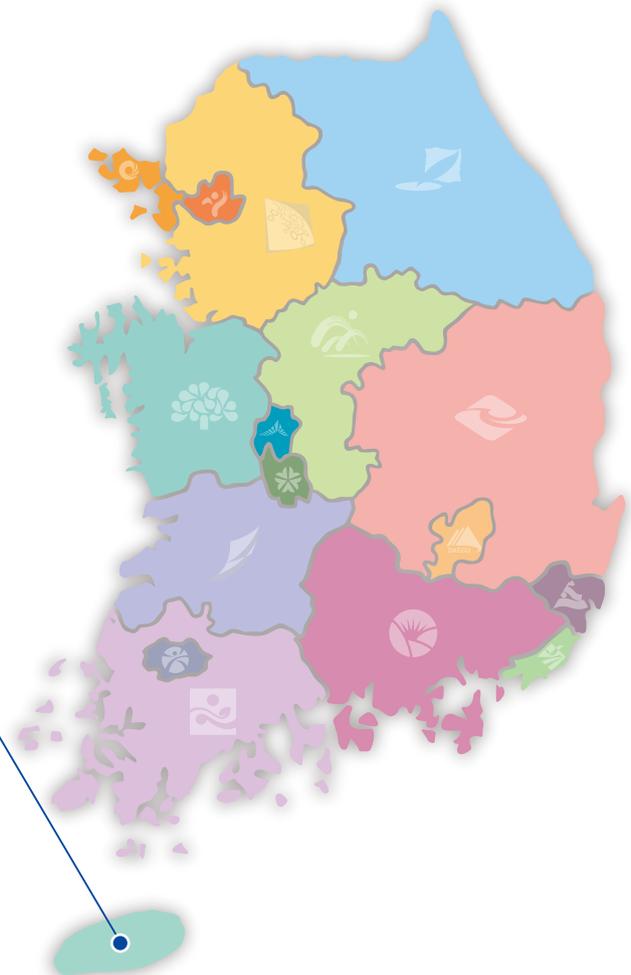


Policy ISSUE REPORT

제주 인구 통계 종합 분석

박승규 연구위원 이제연 수석연구원





I. 도내 인구변화

II. 출산 및 출생아 수 변화

1. 출산 현황
2. 출생아수 변화
3. 혼인
4. 출산의 기회비용

III. 인구이동

1. 제주도 이동현황
2. 읍면동 이동현황
3. 연령별 이동현황
4. 이동사유별 이동현황
5. 전출지별 이동현황

IV. 사망 및 고령화

1. 사망 현황
2.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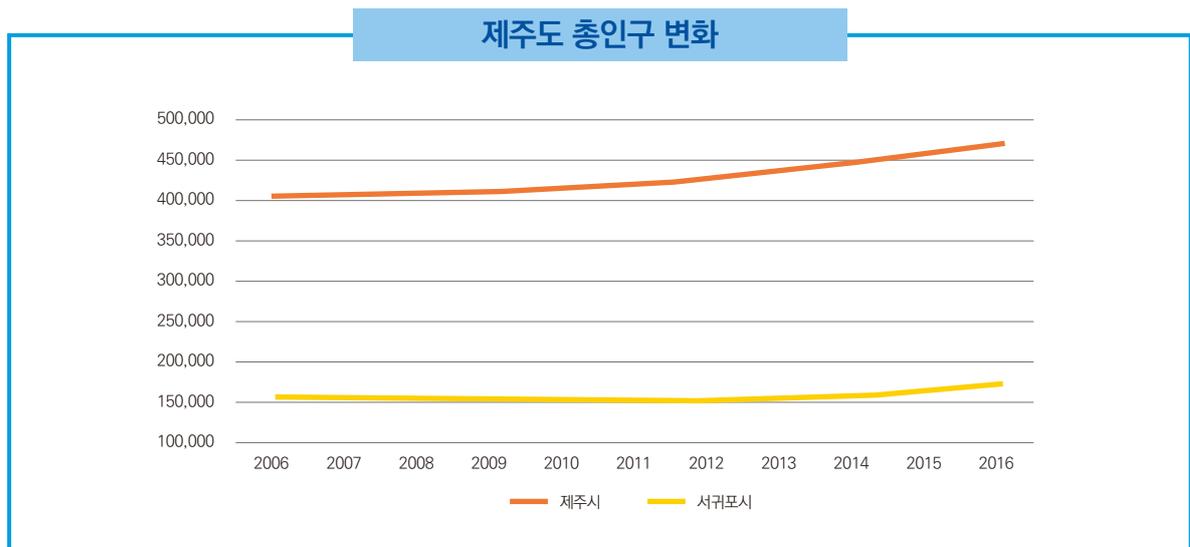
V. 제주도 인구변화 종합

1. 인구변화의 경제적 효과
 2. 종합
-

I. 도내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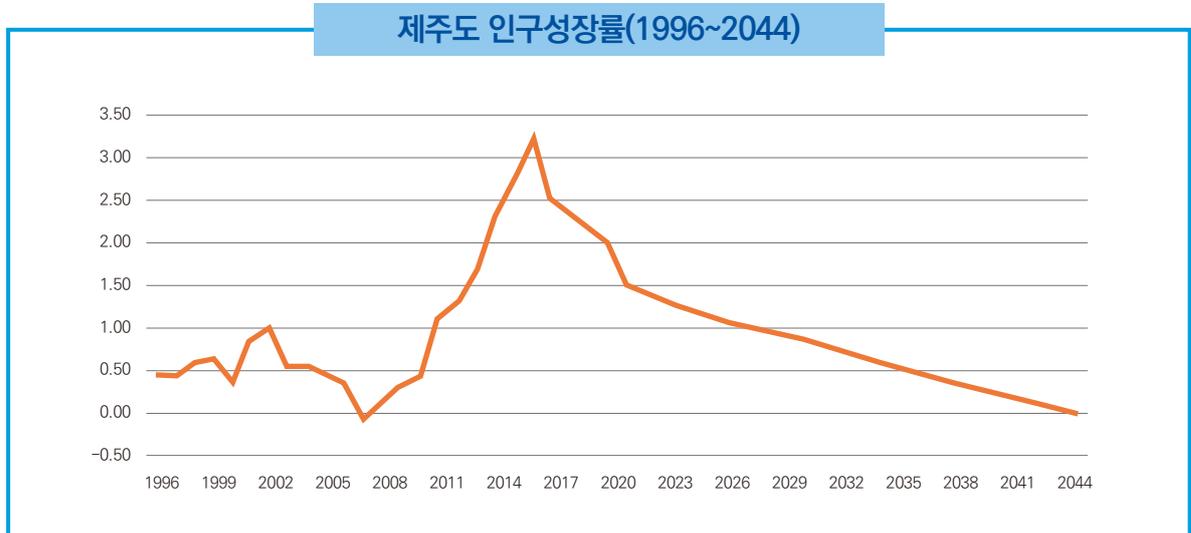
✓ 제주도 총인구 변화

- 제주도의 인구는 2006년 558,496명에서 2016년 641,597명으로 2006년 대비 2016년 약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제주시는 403,601명에서 470,665명으로 약 17% 증가하였으며, 서귀포시는 154,895명에서 170,932명으로 약 10%의 증가하여 제주시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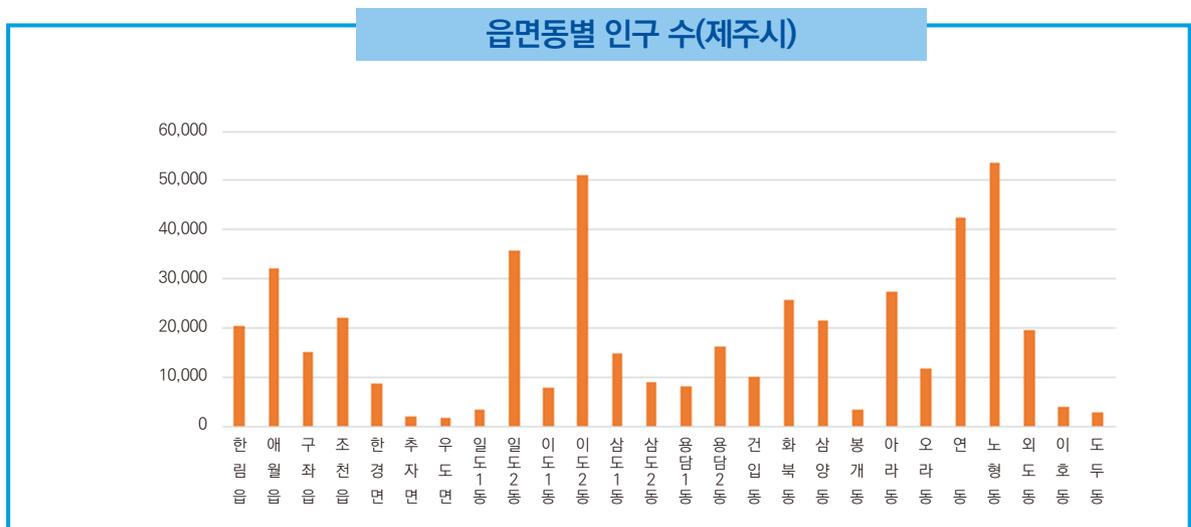
✓ 제주도 인구성장률

- 제주도의 인구성장률은 1996년부터 2043년까지 지속적으로 양(+)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45년부터는 인구성장률이 -0.02%로 2045년을 기점으로 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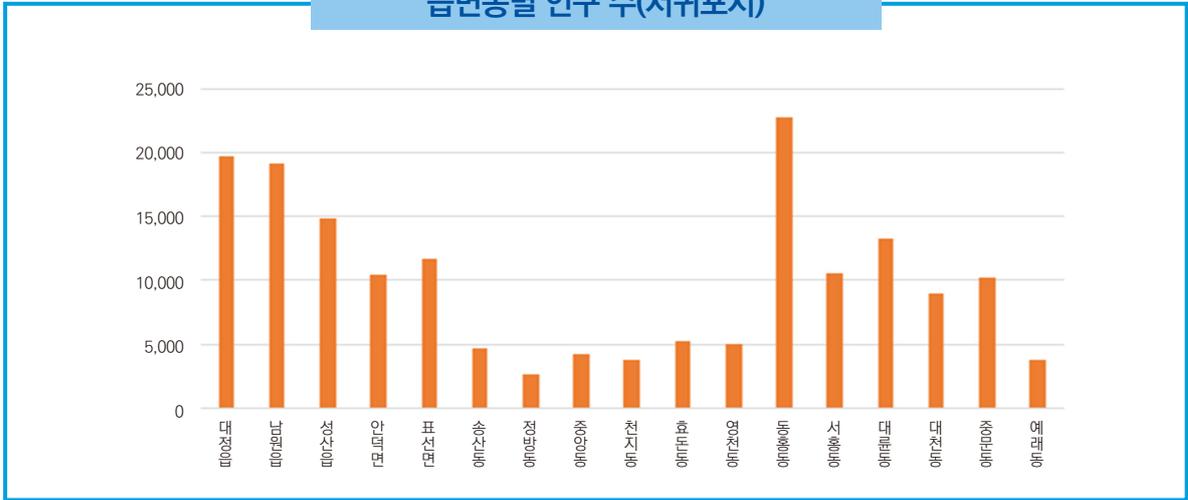


읍면동별 인구 수(2016)

- 2016년 제주시 읍면동별 인구 중 노형동이 53,524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도2동 51,173명, 연동 42,419명인 것으로 나타남
 - 우도면은 1,788명으로 제주시 내 가장 적은 인구의 행정구역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서귀포시 읍면동별 인구 중 동홍동이 22,806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정읍 19,685명, 남원읍 19,151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정방동은 2,641명으로 서귀포시 내 가장 적은 인구의 행정구역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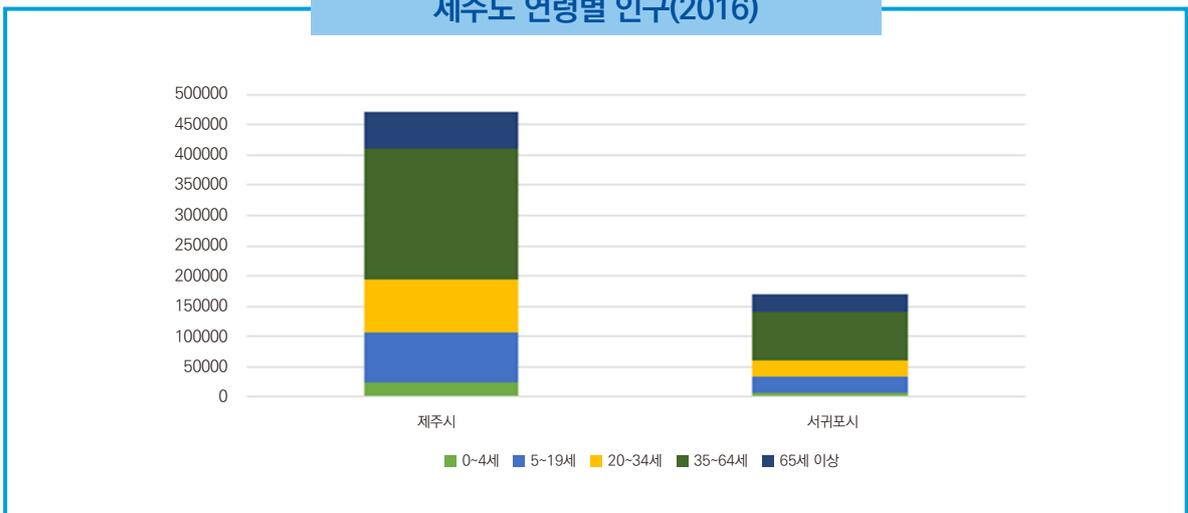
읍면동별 인구 수(서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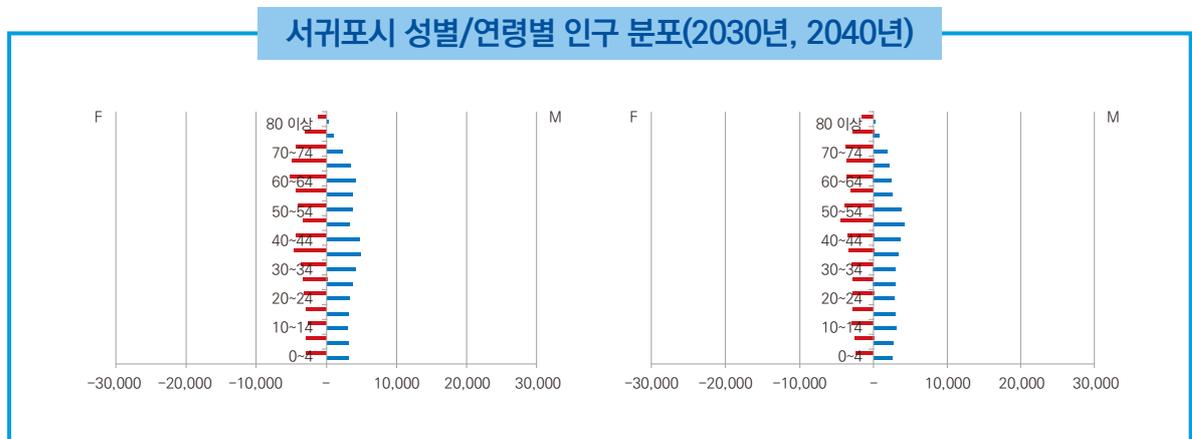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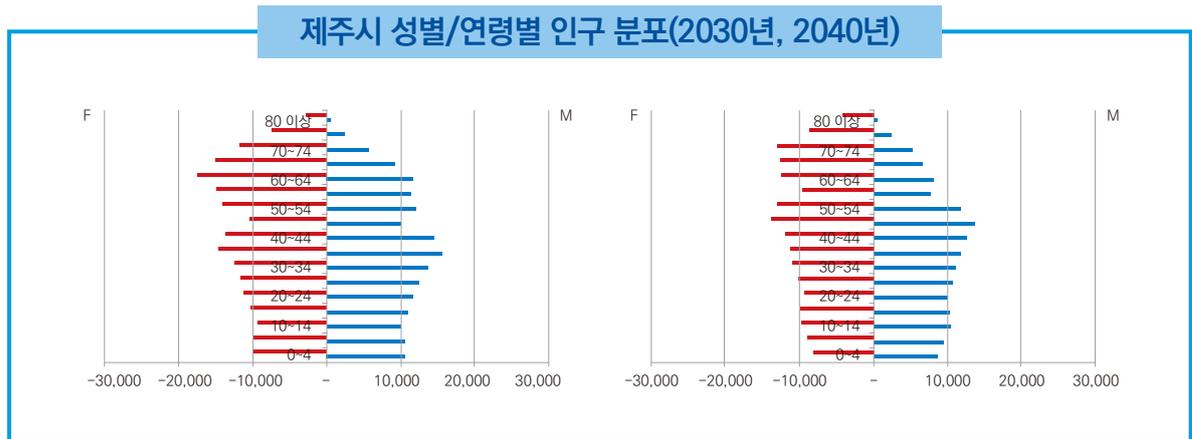
✓ 제주도 연령별 인구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연령별 인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35~64세 연령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제주시의 경우 5~19세 17.7%, 20~34세 18.6%, 65세 이상 12.6%인 것으로 나타났고 서귀포시의 경우 5~19세 15.3%, 20~34세 16.2%, 65세 이상 17.6%인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 연령별 인구(2016)



- 반면, 제주시의 인구는 2030년 대비 2040년 남성의 인구는 각각 12%, 10% 감소한데 반해, 서귀포시는 각각 15%, 13% 감소함으로써 서귀포시의 인구가 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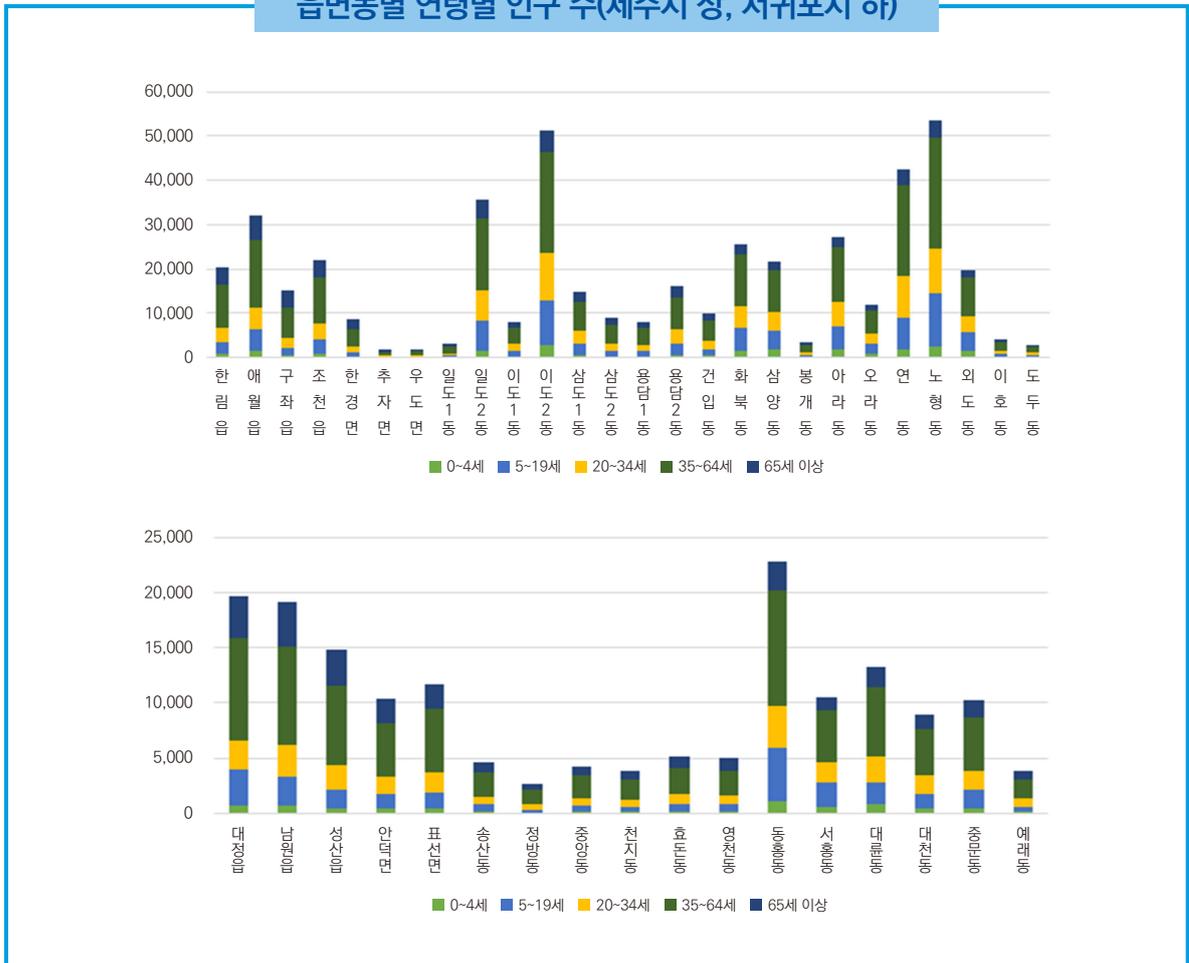


읍면동별 연령별 인구 수(2016)

- 제주시의 읍면동 연령별 인구 중 0~4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삼양동(8.2%)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추자면(30.3%)임
 - 반면, 0~4세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추자면(1.8%)인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노형동(7.2%)인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 연령별 인구 중 0~4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흥동(5.9%)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천동(22.4%)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0~4세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성산읍(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흥동(11.1%)인 것으로 나타남

읍면동별 연령별 인구 수(제주시 상, 서귀포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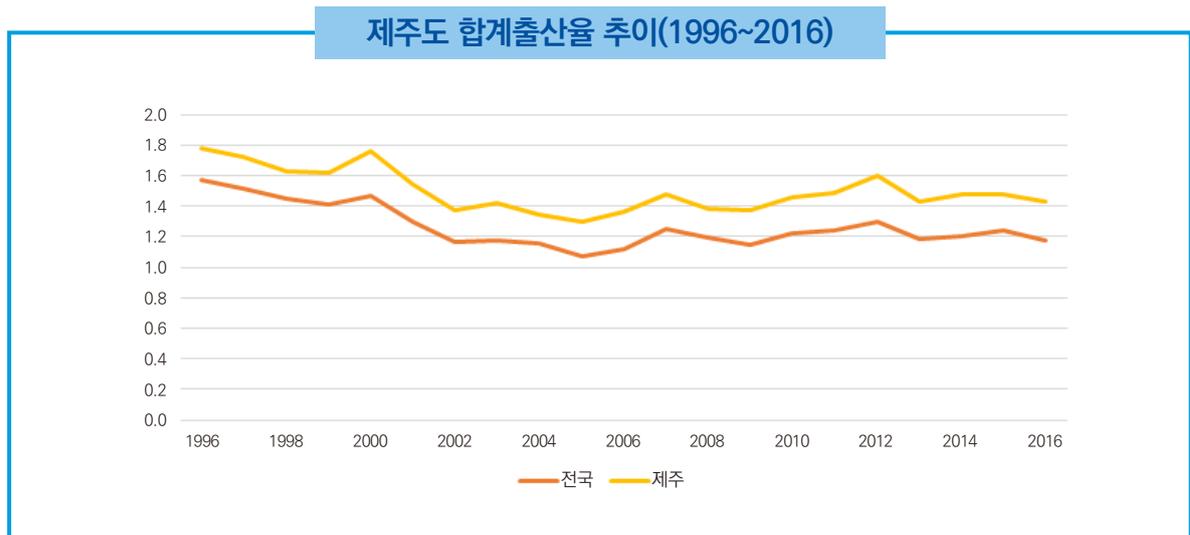


II. 출산 및 출생아 수 변화

1 출산 현황

✓ 합계출산율 추이(199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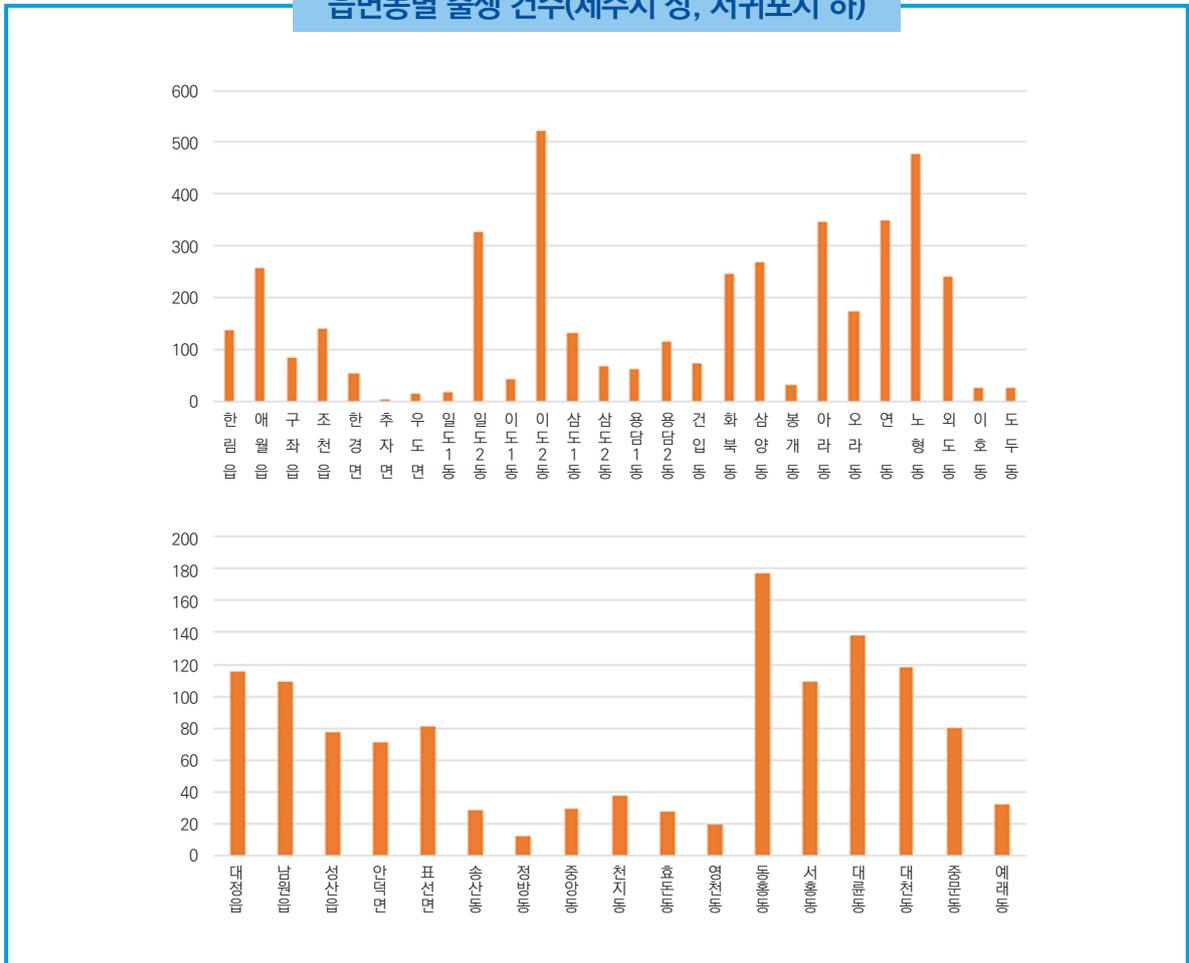
-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1996년의 여성 한 명당 1.782명에서 2016년 1.432명으로 완만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제주도 읍면동별 출생 건수

- 2016년 제주시 읍면동별 출생 건수는 이도2동이 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형동 478명, 연동 350명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추자면은 출생 건수가 2명으로 제주시 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2016년 서귀포시 읍면동별 출생 건수는 동홍동이 11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륜동 138명, 대천동 118명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정방동은 출생 건수가 12명으로 서귀포시 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읍면동별 출생 건수(제주시 상, 서귀포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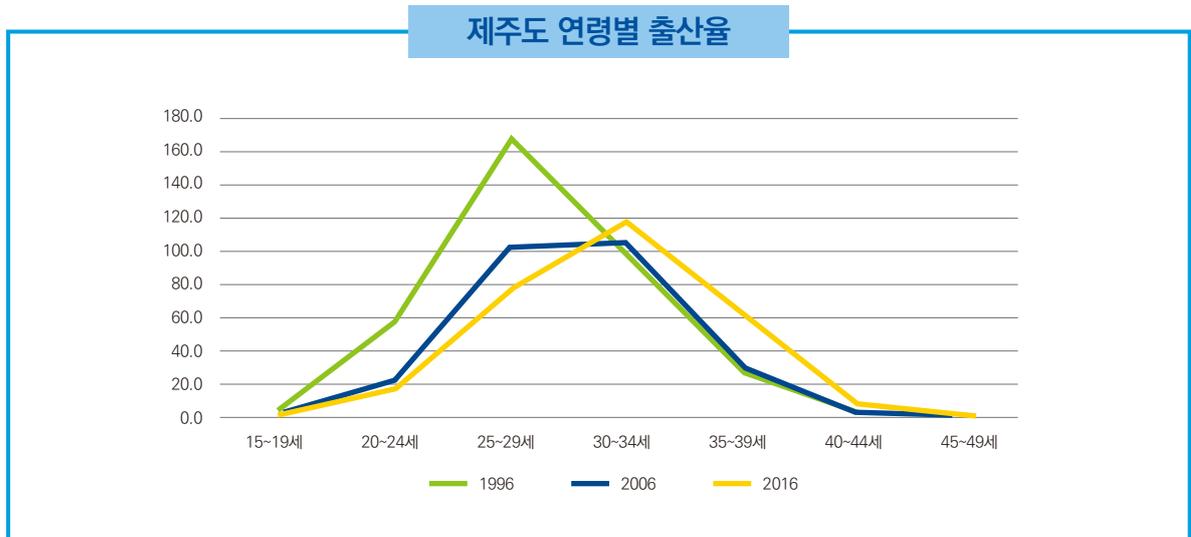


☑️ 제주도 읍면동별 출생 건수 추이

- 제주시 읍면동별 출생 건수 추이는 2007년 대비 2016년 출생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아라동(16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라동(135%), 삼양동(7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추자면(-90%), 이호동(-54%), 구좌읍(-47%)은 2007년 대비 2016년 출생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조사됨
- 서귀포시 읍면동별 출생건수 추이는 2007년 대비 2016년 출생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천동(6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륜동(35%), 천지동(23%)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송산동(-49%), 남원읍(-48%), 안덕면(-46%)은 2007년 대비 2016년 출생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조사됨

✓ 제주도 연령별 출산율

- 1996년 이후 20년 동안 제주도 가임기 여성의 출산 시기는 20대에서 30대로 늦춰졌으며, 20대 후반 출산율은 1996년 여성 천 명당 167.7명에서 2016년 75.8명으로 하락한 반면, 30대 초반 출산율은 1996년 26.9명에서 2016년 62.4명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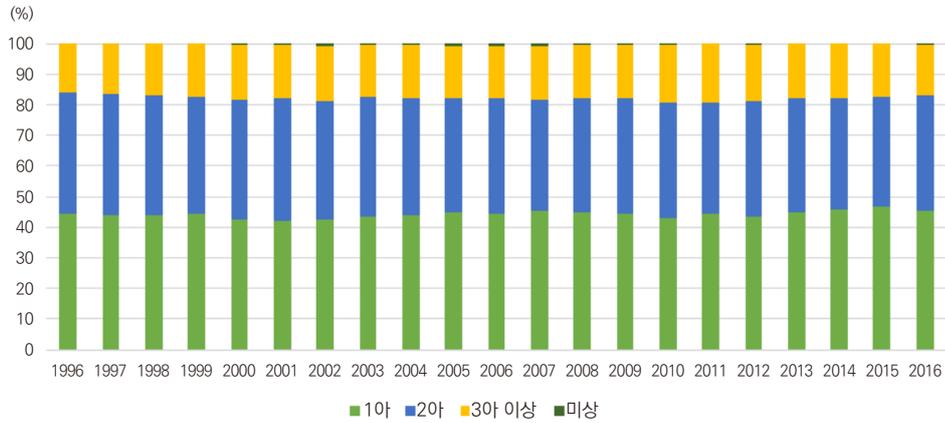


2 출생아 수 변화

✓ 제주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 변화

- 출생순위별로 제주도 출생아 중 첫째아의 비중은 1996년 44.3%에서 2016년 45.4%로 소폭 증가하였고, 둘째아의 비율은 1996년 39.7%에서 2016년 37.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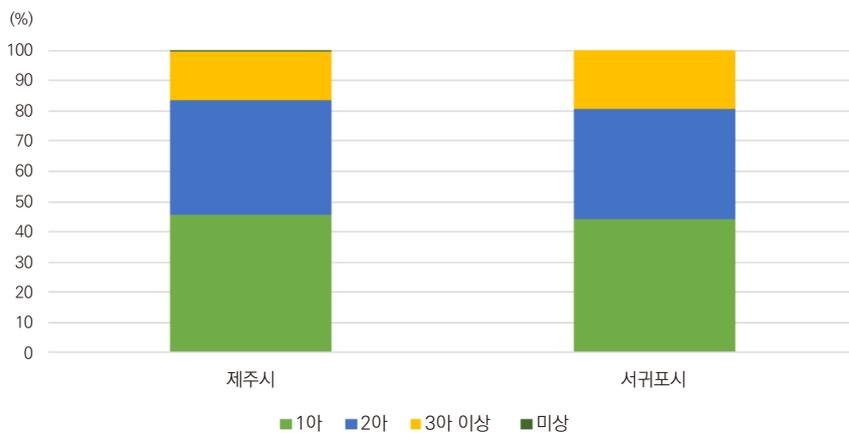
제주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 변화(1996~2016)



☑ 제주도 시군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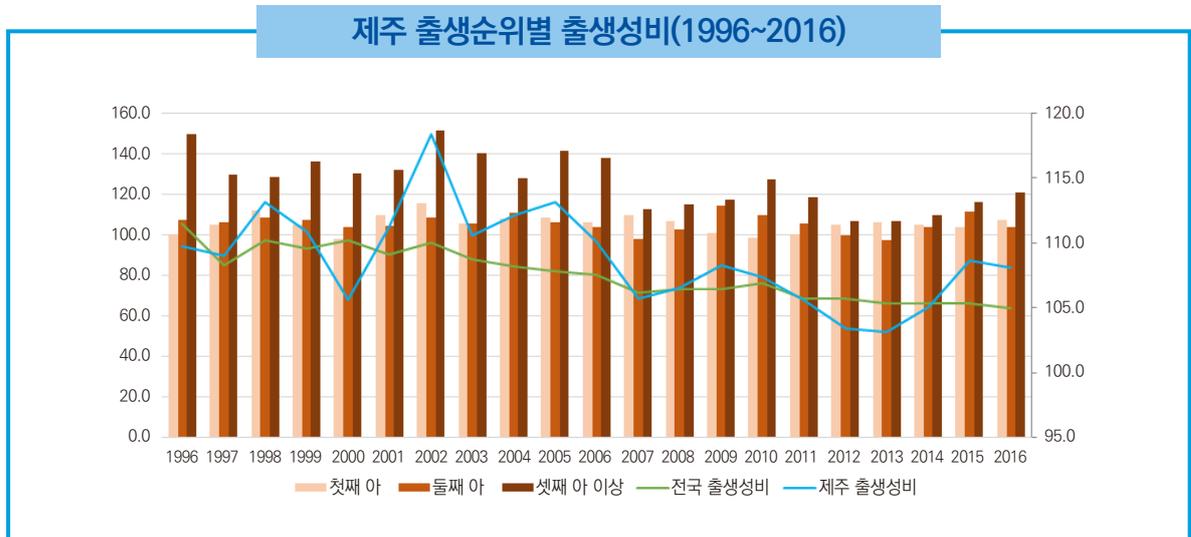
-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은 제주시의 첫째아 비중이 45.9%로 44.0%인 서귀포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아 비중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37.7%, 36.4%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반면, 셋째아 비중은 제주시 16.2%, 서귀포시 19.5%로 서귀포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 시군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2016)



✓ **제주도 출생순위별 출생성비(여아 백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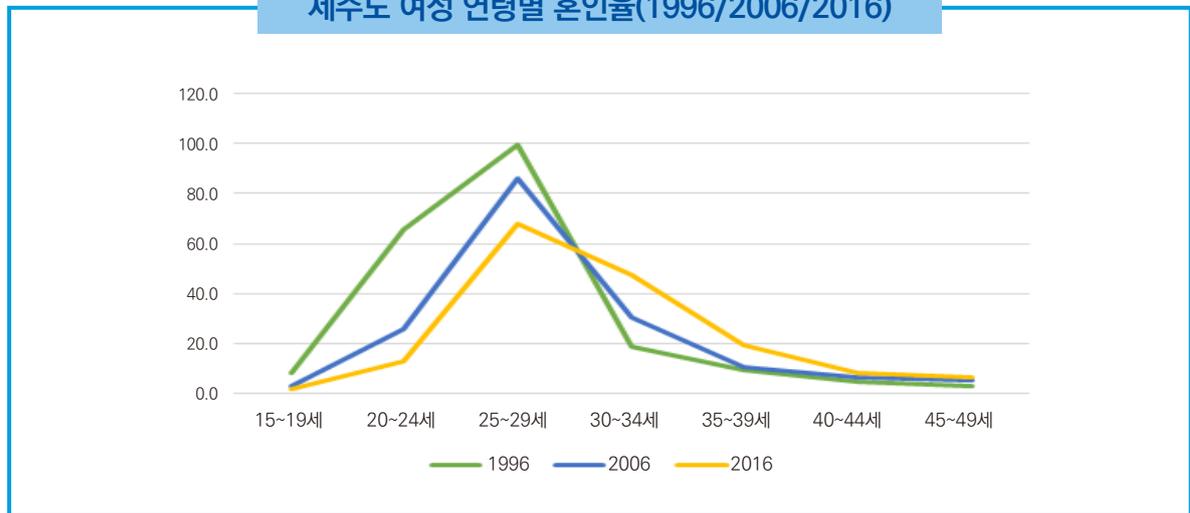
- 제주도의 출생성비는 1996년 여아 백 명당 109.7명에서 2002년 118.4명으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6년에는 108.1명으로 하락
 - 특히,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996년 149.8명에서 2007년 112.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여 2016년 120.9명으로 나타남



✓ **제주도 여성 연령별 혼인율(여성 천 명당)**

- 제주도 여성의 혼인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6년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율은 여성 천 명당 99.2명에서 2006년 86.2명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68.1명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0대 초반 여성의 혼인율은 1996년 18.7명에서 2016년 47.6명으로 증가

제주도 여성 연령별 혼인율(1996/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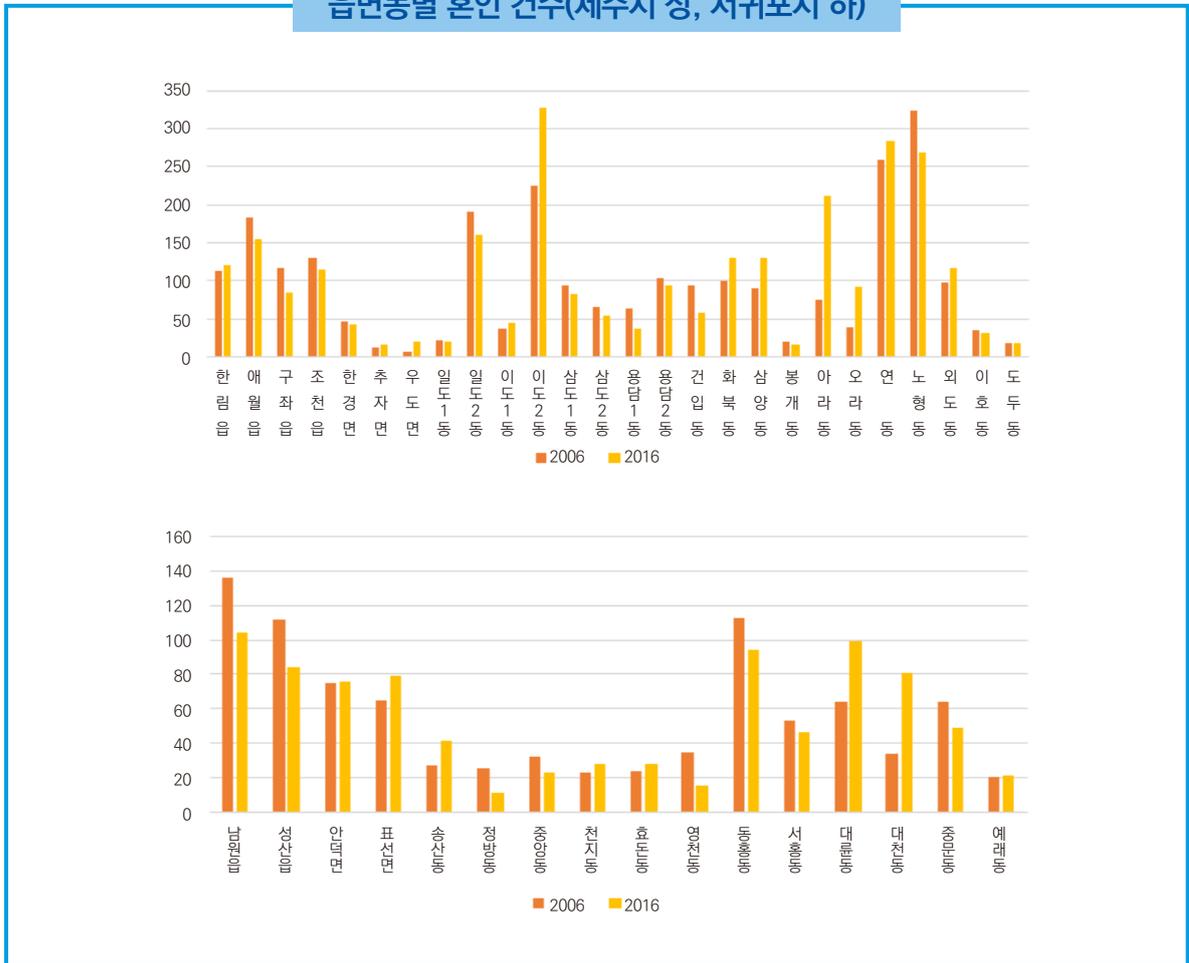


3 혼인

☑ 제주도 읍면동별 혼인 건수

- 제주시의 읍면동별 혼인 건수는 2006년 대비 2016년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우도면(233.3%)으로 6건에서 2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아라동(178.9%)이 76건에서 2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오라동(132.5%)이 40건에서 93건으로 증가
 - 반면, 용담1동(-39.7%), 건입동(-37.2%), 구좌읍(-28.2%)은 제주시 내 2006년 대비 2016년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혼인 건수는 2006년 대비 2016년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천동(138.2%)으로 34건에서 8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륜동(54.7%), 송산동(51.9%)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영천동(-57.1%), 정방동(-56.0%), 중앙동(-28.1%)은 서귀포시 내 2006년 대비 2016년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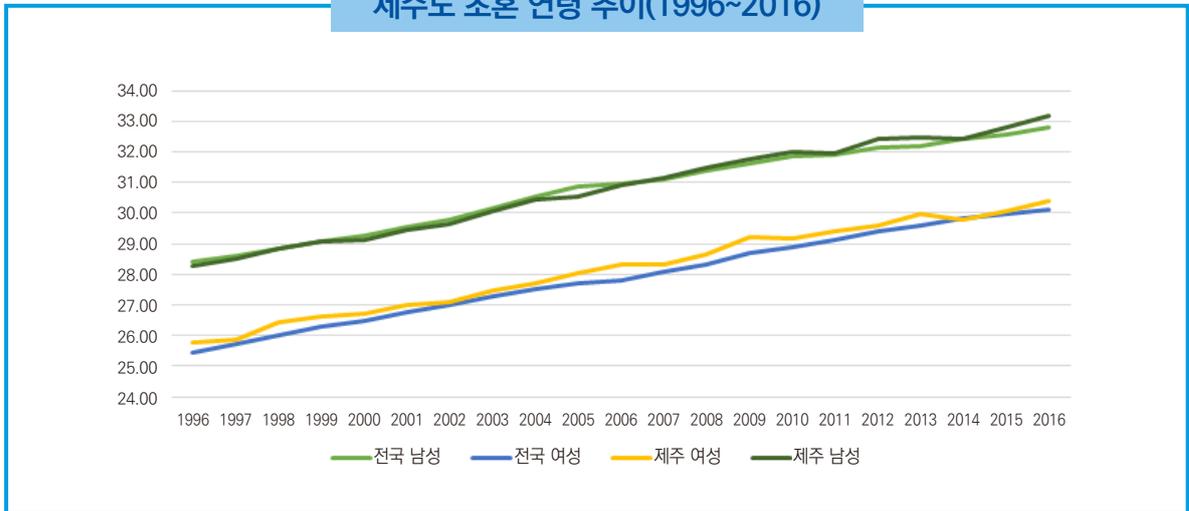
읍면동별 혼인 건수(제주시 상, 서귀포시 하)



☑️ 제주도 초혼 연령 추이(1996~2016)

- 제주도 여성과 남성의 초혼 연령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제주 남성과 여성의 초혼 연령은 1996년 각각 28.28세, 25.76세에서 2016년 33.19세, 30.42세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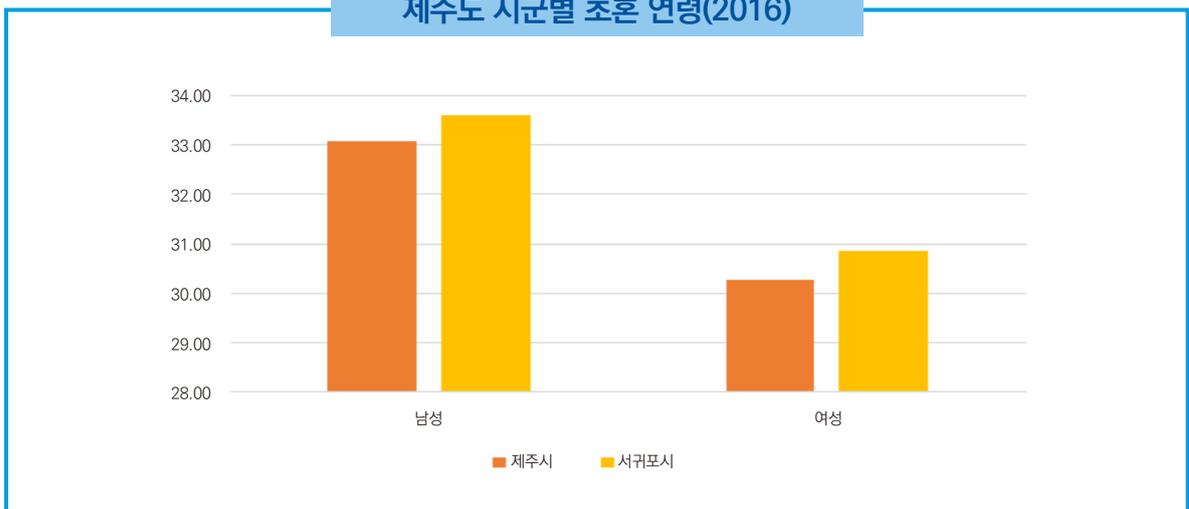
제주도 초혼 연령 추이(1996~2016)



✓ 제주도 시군별 초혼 연령

- 제주시 초혼 연령은 2016년 남성 33.06세, 여성 30.28세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는 남성 33.59세 여성 30.87세로 서귀포시가 남성과 여성 모두 제주시보다 초혼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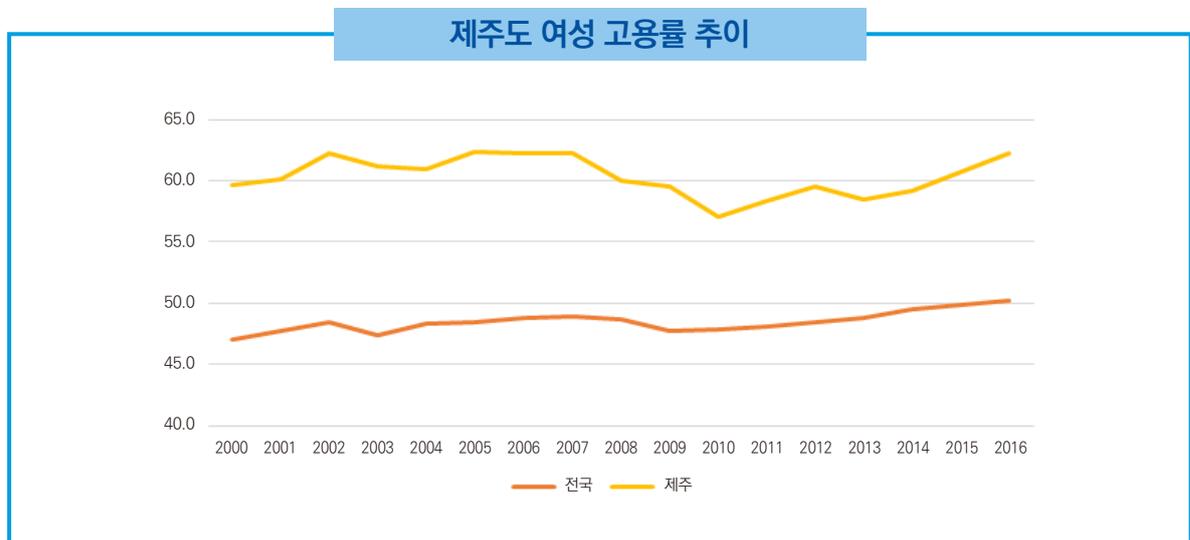
제주도 시군별 초혼 연령(2016)



4 출산의 기회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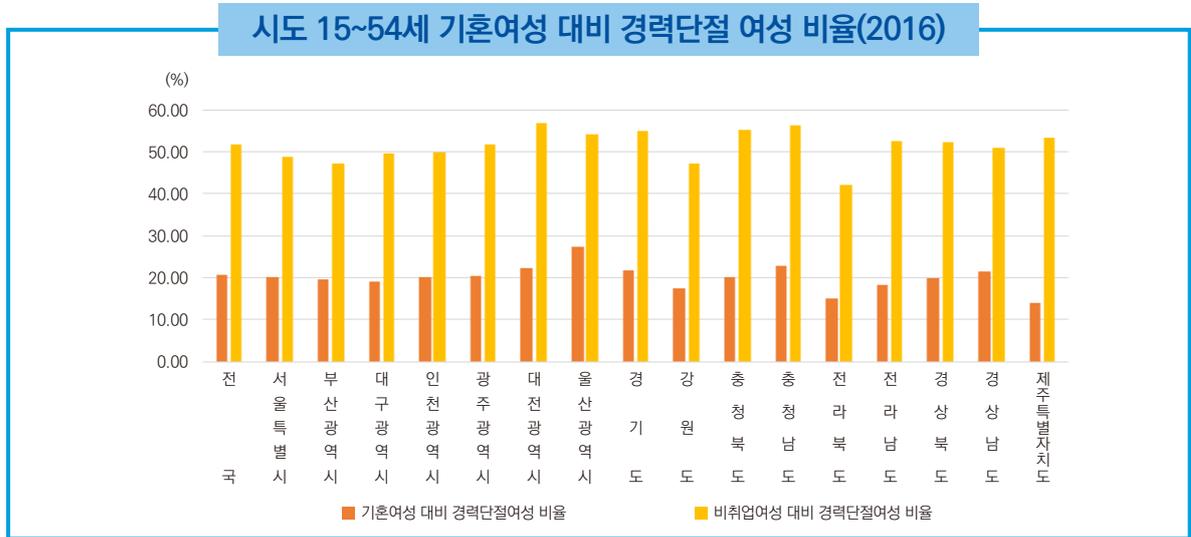
✓ 제주도 여성 고용률 추이

- 제주도 여성 고용률은 2000년 59.7%에서 2007년 62.2%까지 상승하였으나, 2010년 57.0%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6년 62.3%를 기록
 - 제주도 여성 고용률은 전국 평균 여성 고용률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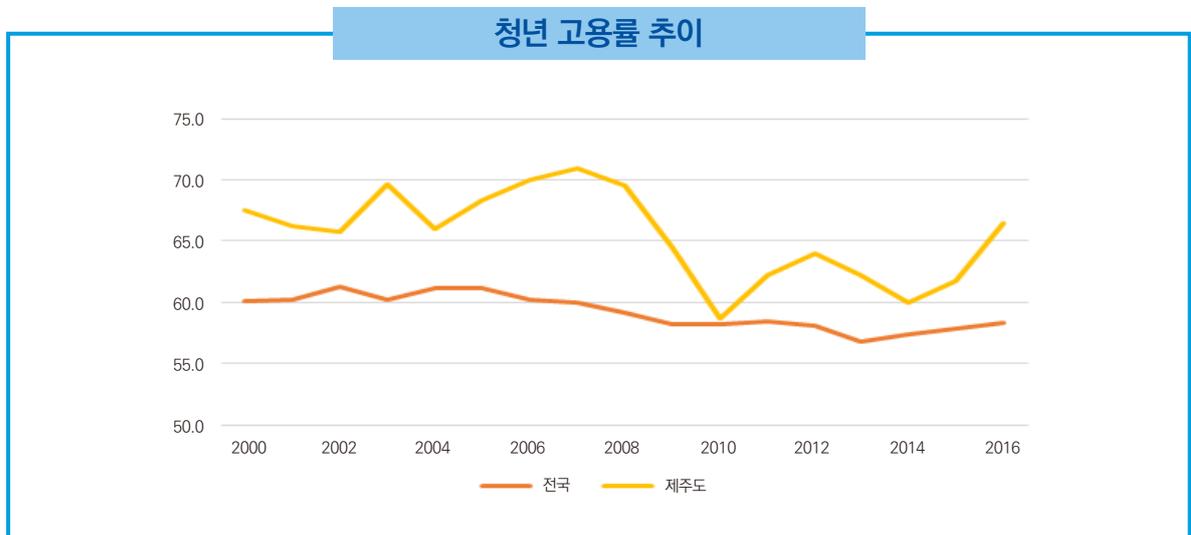
✓ 시도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율

- 제주도 기혼 여성의 14%가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고, 비취업 여성 2명 중 한 명은 경력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혼인 이후에도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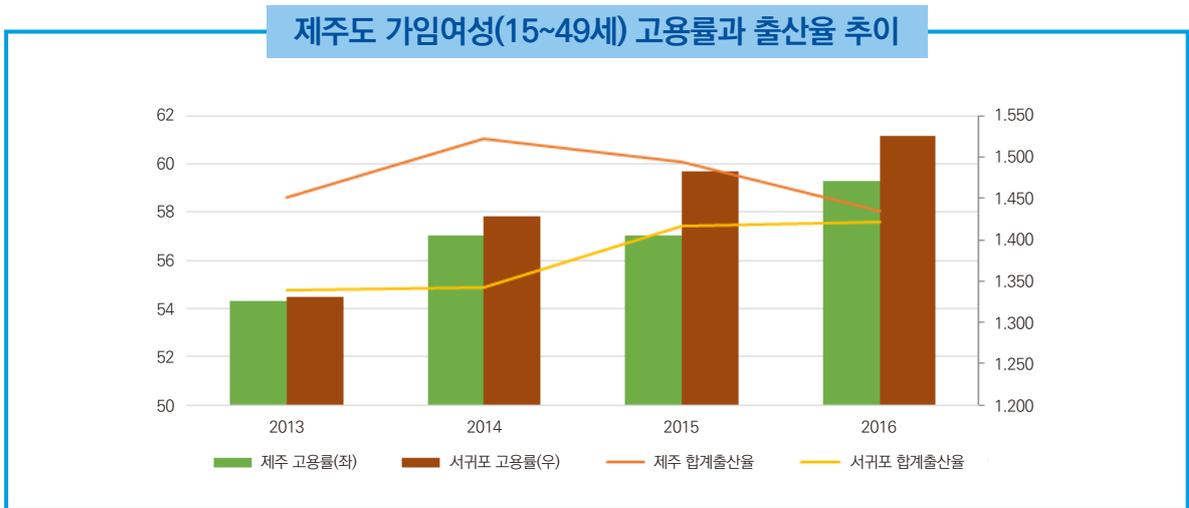
✓ 청년 고용률 추이

- 제주도 20~29세 청년 고용률은 2000년 67.5%에서 2007년 71.0%까지 상승하였으나, 2010년 58.7%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6년에는 66.5%를 기록
 - 2010년 제주도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 고용률에 근접하여 가장 낮은 고용 상태를 나타냄
 - 반면, 제주도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 고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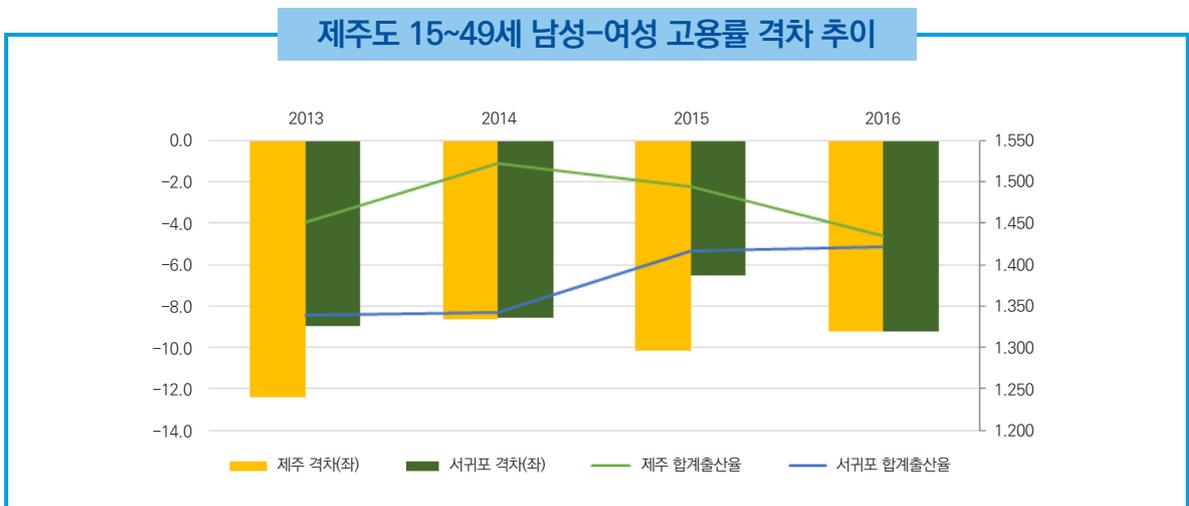
☑️ **제주도 가임여성(15~49세) 고용률과 출산율 추이**

- 제주도 가임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임여성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제주시의 합계출산율은 감소되는 성향을 나타냈으며, 서귀포시는 이에 반해 증가하는 성향을 나타냄



☑️ **제주도 15~49세 남성-여성 고용률 격차 추이**

- 제주도의 15~49세 남성-여성 고용률 격차와 합계출산율과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남성-여성 고용률 격차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제주시의 합계출산율은 감소하며 서귀포시의 합계출산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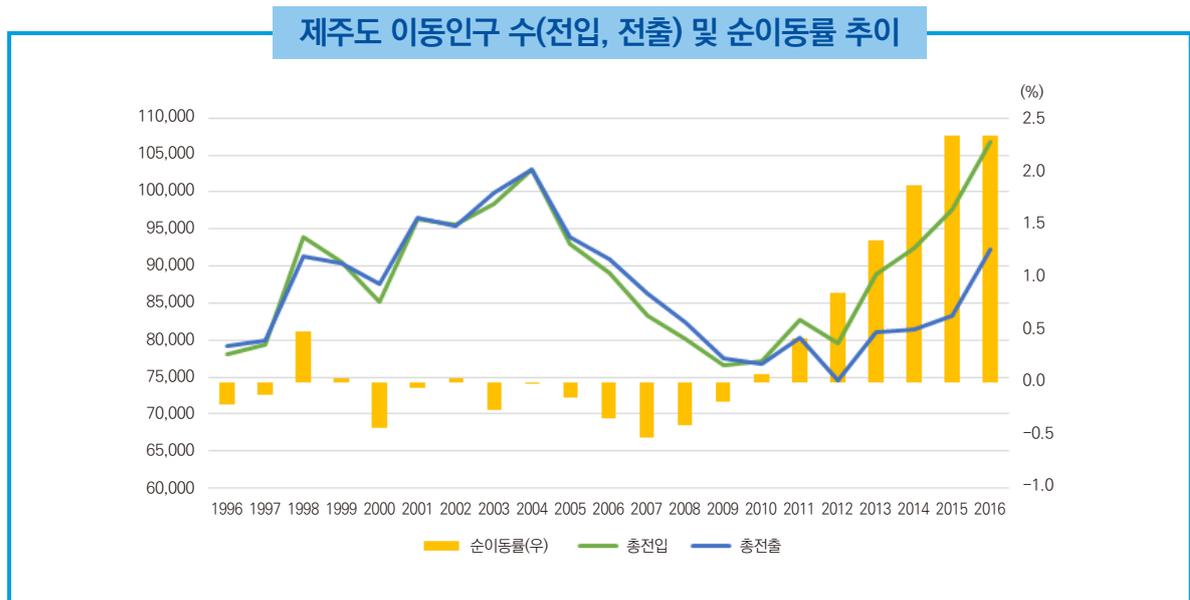


III. 인구이동

1 제주도 이동현황

☑ 제주도 이동인구 수 및 순이동률 추이

- 제주도의 이동인구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음(-)의 순이동률을 나타냈으나 이후 총전입인구가 총전출인구를 상회하여 양(+)의 순이동률을 나타냄
 - 2016년 제주도의 총전입 인구는 106,825명, 총전출 인구는 92,193명으로 순이동인구 14,632명, 순이동률 2.3%를 나타냄



☑ 제주도 전출지별 전입인구

- 전출지별 제주도 전입인구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 부산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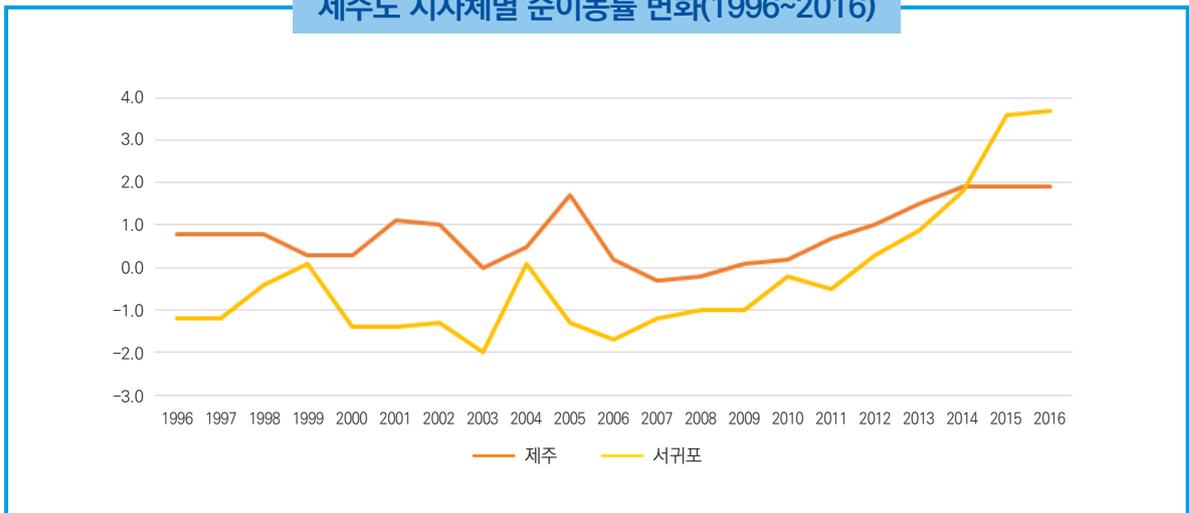
전출지별 제주도 전입인구(2016)



✓ 제주도 지자체별 순이동률 변화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순이동률 변화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순이동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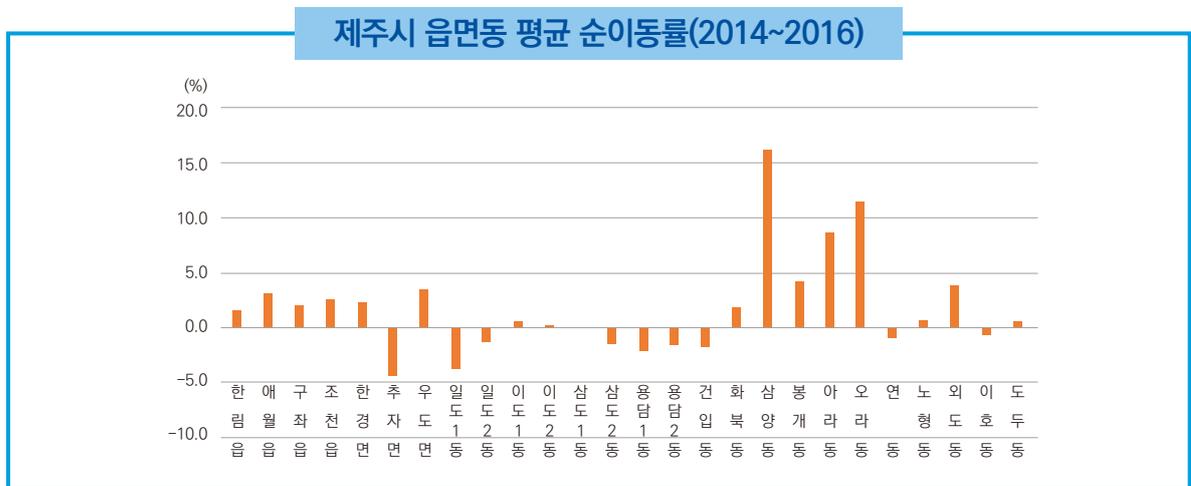
제주도 지자체별 순이동률 변화(1996~2016)



2 읍면동 이동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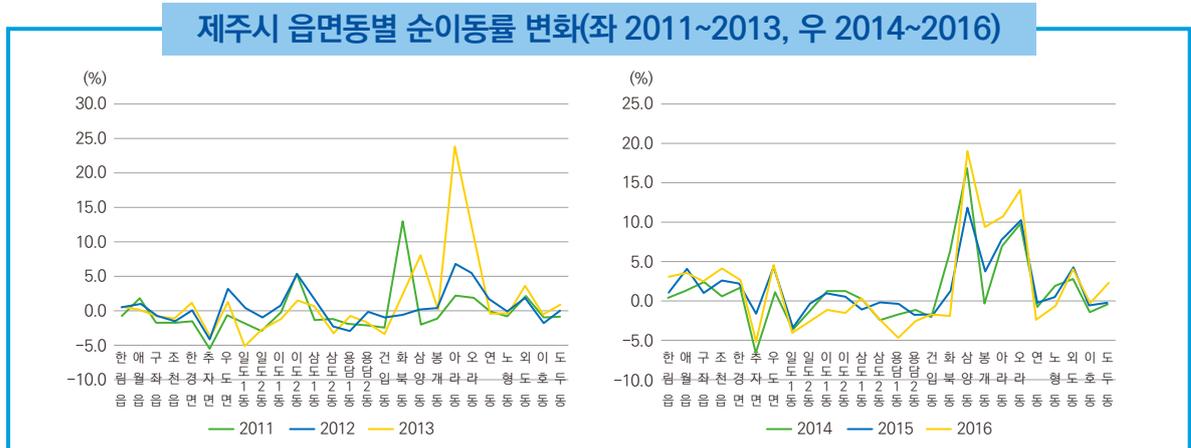
☑️ 제주시 읍면동 평균 순이동률

- 최근 3년간 제주시 읍면동별 평균 순이동률은 삼양동이 16.2%로 가장 활발하게 인구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라동(11.5%), 아라동(8.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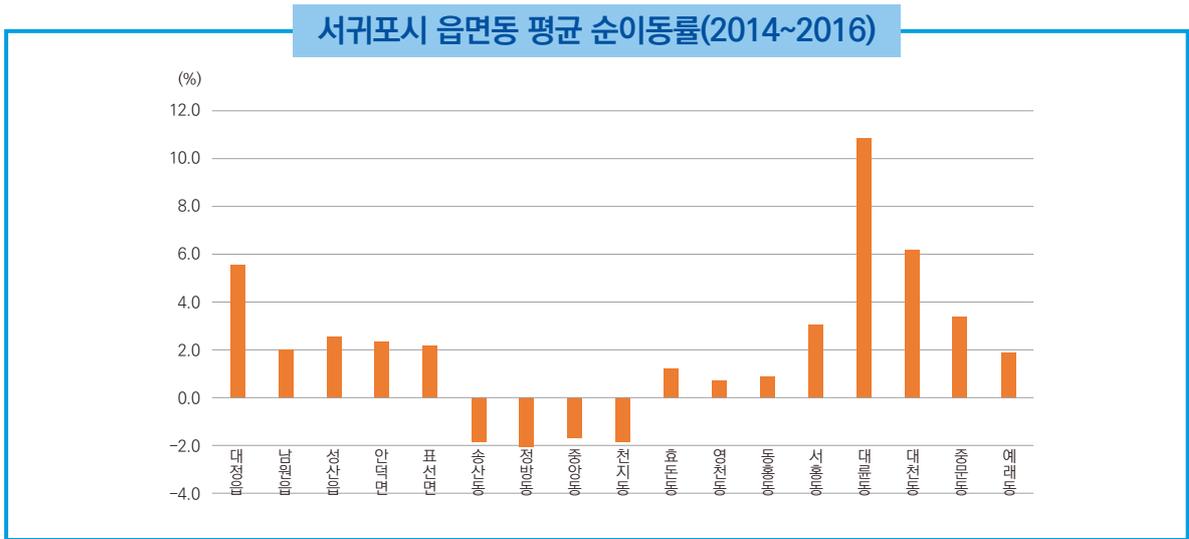
☑️ 제주시 읍면동 순이동률 변화

- 제주시 읍면동별 순이동률 변화는 2013년 아라동이 24.2%로 읍면동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였고, 다음으로 2015년 삼양동이 19.2%의 순이동률을 나타냄
 - 제주시 읍면동이 대체로 양(+)의 순이동률을 보여 인구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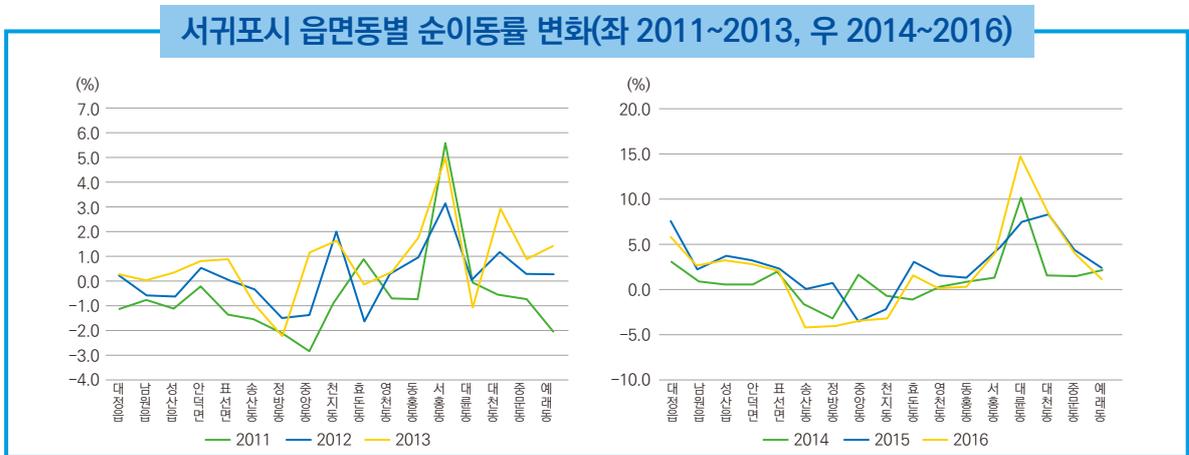
서귀포시 읍면동 평균 순이동률

- 최근 3년간 서귀포시 읍면동별 평균 순이동률은 대륜동이 10.9%로 가장 활발하게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천동(6.2%), 대정읍(5.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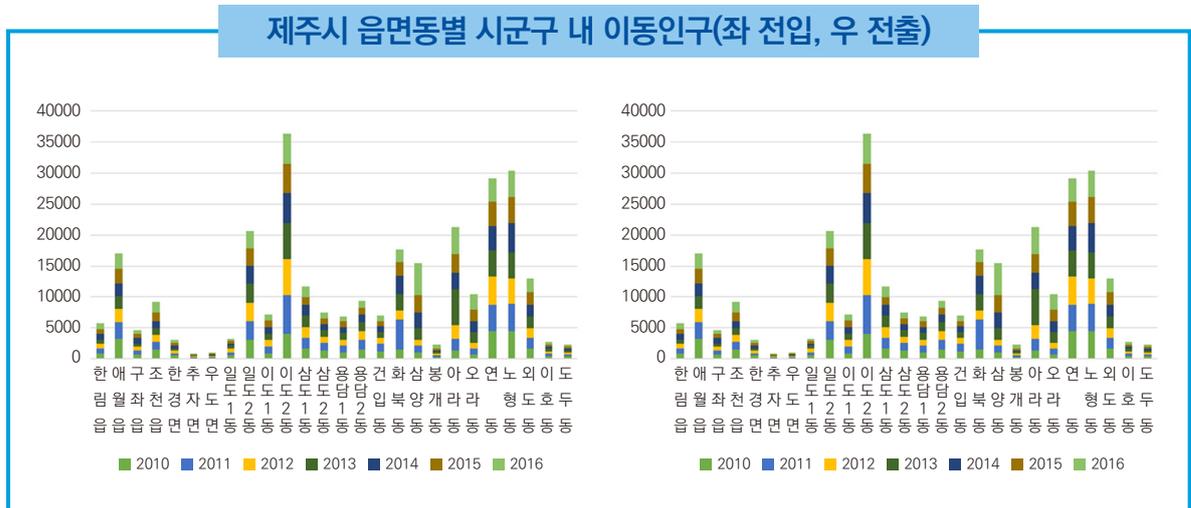
서귀포시 읍면동별 순이동률 변화

- 서귀포시 읍면동별 순이동률 변화는 2015년 대륜동이 15.0%의 순이동률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인구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15년 대천동 순이동률은 8.8%로 나타남



☑️ **제주시 읍면동별 시군구 내 이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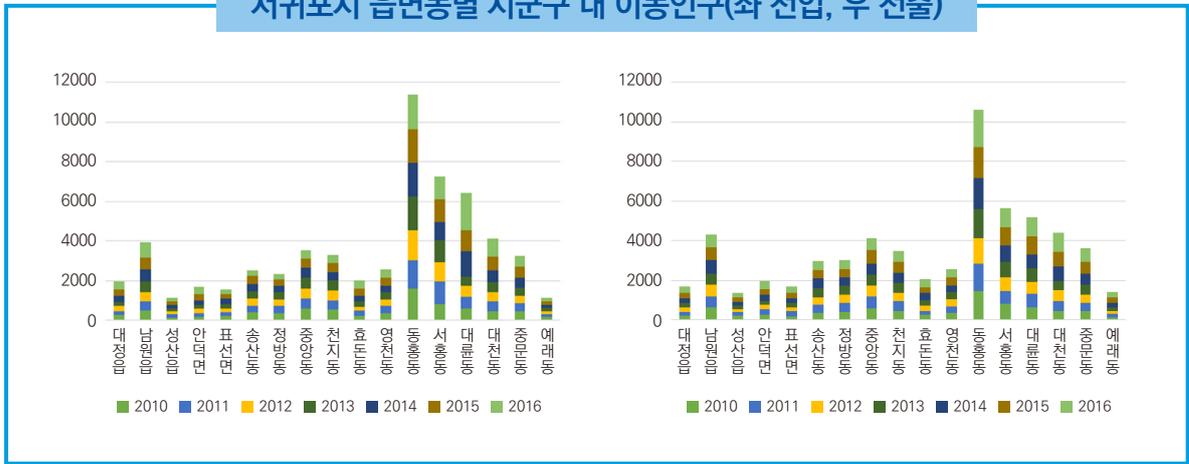
- 제주시의 읍면동별 시군구 내 전입인구는 이도2동과 노형동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추자면과 우도면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시군구 내 전입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반면, 제주시의 읍면동별 시군구 내 전출인구는 이도2동, 연동, 노형동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추자면과 우도면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시군구 내 전출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읍면동별 시군구 내 이동인구**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시군구 내 전입인구는 동홍동과 서홍동이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산읍과 예래동이 전입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시군구 내 전출인구는 동홍동과 서홍동이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성산읍과 예래동이 전출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2016년 대륜동 전입인구는 1,914명으로 2010년부터 2016년 중 시군구내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2016년 동홍동의 전출인구는 1,861명으로 동 기간 시군구 내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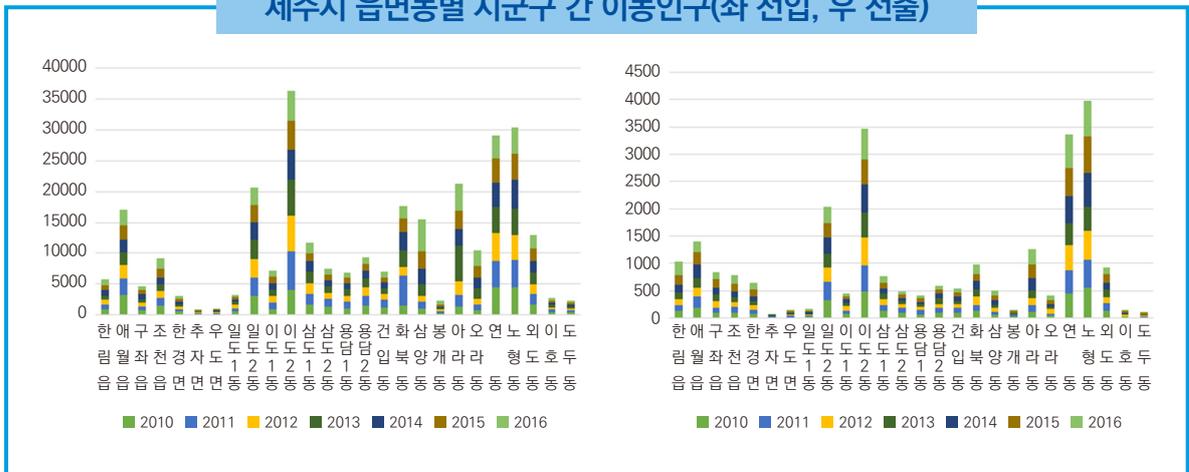
서귀포시 읍면동별 시군구 내 이동인구(좌 전입, 우 전출)



제주시 읍면동별 시군구 간 이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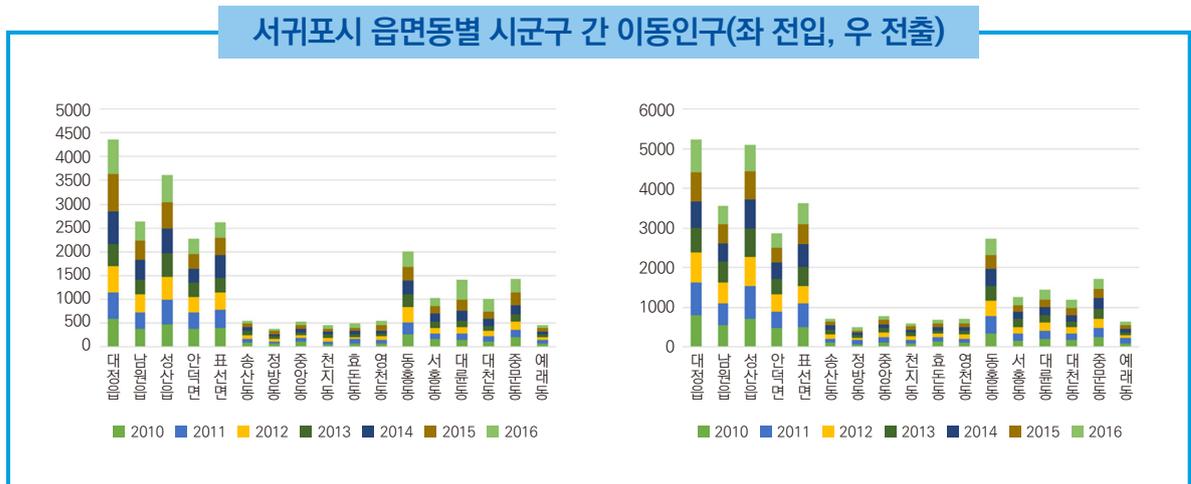
- 제주시의 읍면동별 시군구 간 전입인구는 이도2동, 노형동, 연동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추자면과 우도면, 도두동이 시군구 간 전입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제주시의 읍면동별 시군구 간 전출인구는 이도2동, 연동, 노형동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추자면, 도두동, 이호동 등은 시군구 간 전입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제주시 읍면동별 시군구 간 이동인구(좌 전입, 우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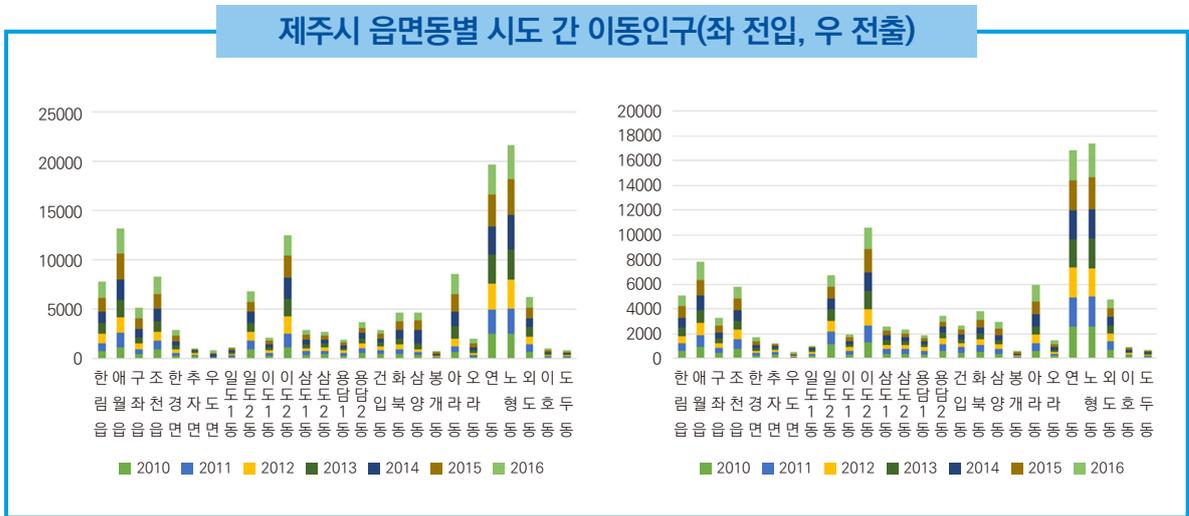
❑ 서귀포시 읍면동별 시군구 간 이동인구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시군구 간 전입인구는 대정읍, 성산읍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방동, 천지동, 효돈동 등은 전입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행정구역 중 2015년 대정읍이 780명으로 시군구 간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2014년 정방동은 42명으로 시군구 간 전입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사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시군구 간 전출인구는 대정읍, 성산읍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방동, 예래동, 천지동 등은 전출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행정구역 중 2011년 성산읍이 841명으로 시군구 간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2015년 정방동은 46명으로 시군구 간 전입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사됨



제주시 읍면동별 시도 간 이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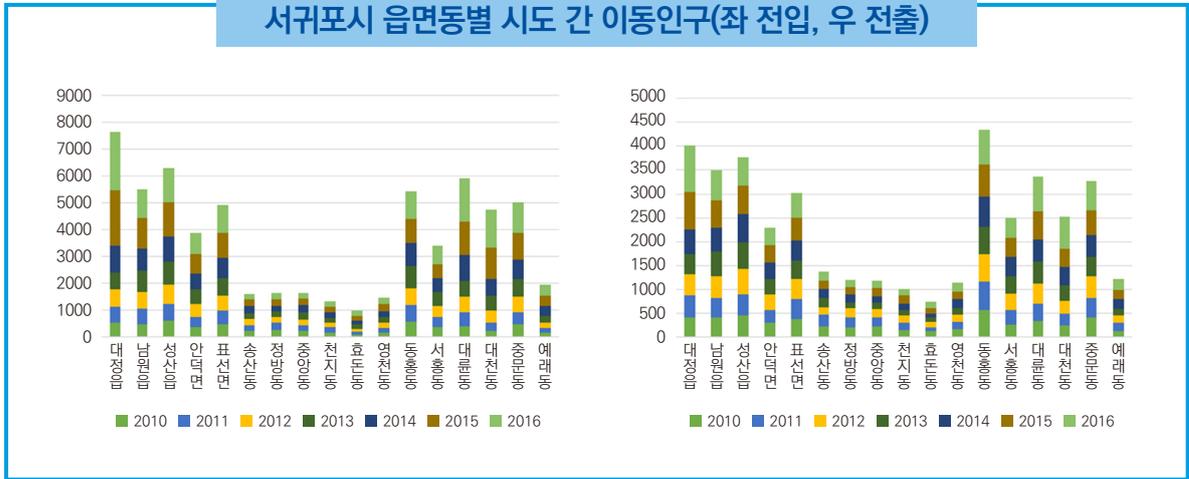
- 제주시의 읍면동별 시도 간 전입인구는 노형동, 연동, 애월읍이 시도 간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봉개동, 우도면 등이 전입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제주시의 읍면동별 시도 간 전출인구는 노형동, 이동2동, 연동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봉개동, 우도면 등이 전출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서귀포시 읍면동별 시도 간 이동인구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시도 간 전입인구는 성산읍, 대정읍이 시도 간 전입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천지동, 효돈동은 시도 간 전입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시도 간 전출인구는 동홍동, 성산읍, 대정읍 등이 가장 시도 간 전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효돈동, 천지동은 시도 간 전입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성산읍과 대정읍은 시도 간, 시군구 간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나타남 반면, 효돈동과 천지동은 시도 간, 시군구 간 인구이동이 저조한 지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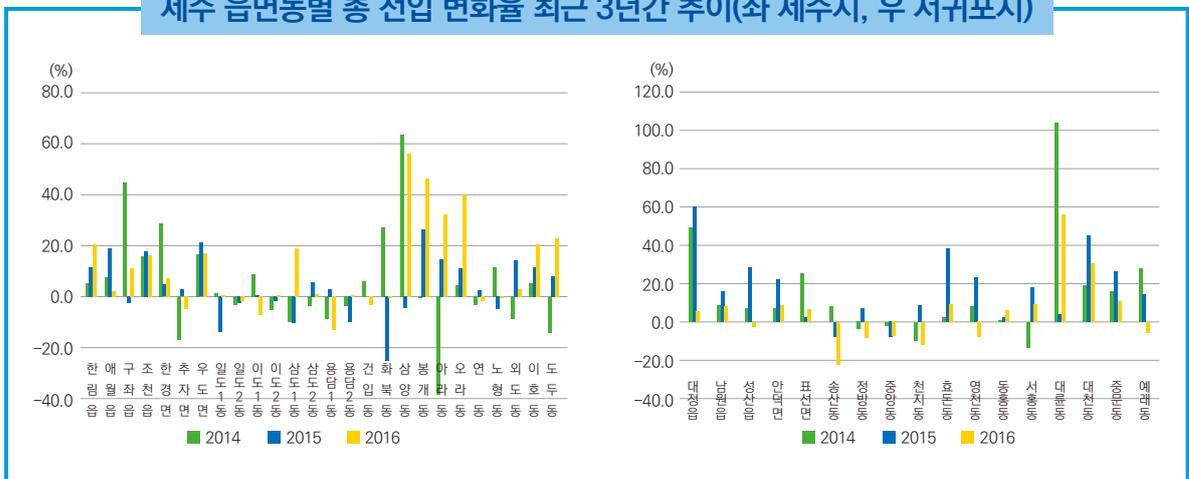
서귀포시 읍면동별 시도 간 이동인구(좌 전입, 우 전출)



✓ 제주 읍면동별 총전입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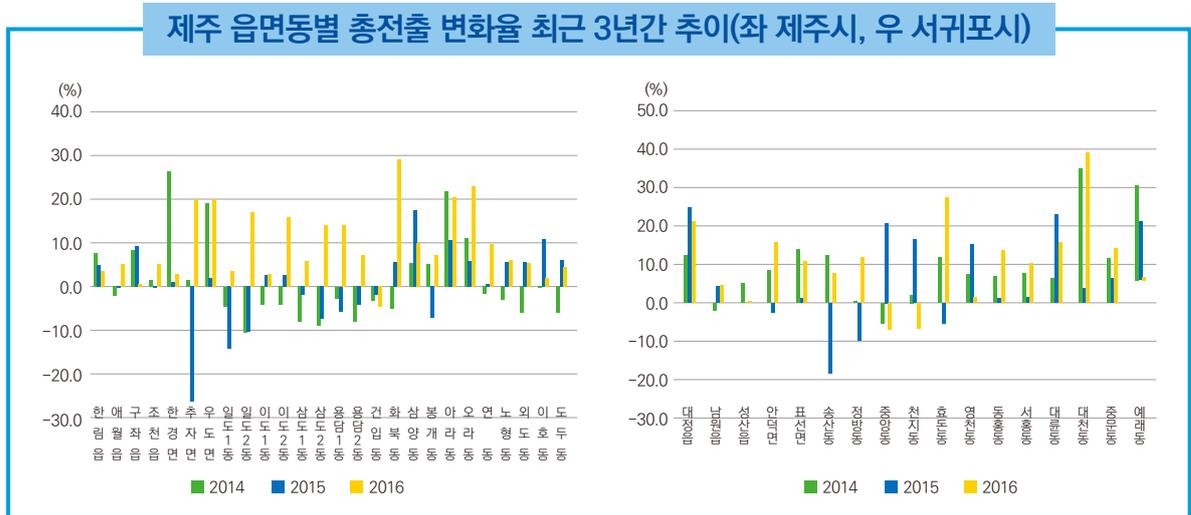
- 제주시의 읍면동별 총 전입 변화율은 2016년 삼양동과 봉개동, 2014년 삼양동이 각각 56.6%, 46.7%, 63.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2014년 추자면, 아라동, 2015년 화북동이 각각 -17.1%, -38.6%, -25.4%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총 전입 변화율은 2014년 대륜동, 2015년 대정읍, 2016년 대륜동이 각각 104.0%, 60.9%, 56.1%의 변화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2016년 송산동, 천지동, 2014년 서홍동이 각각 -21.7%, -11.8%, -13.4%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제주 읍면동별 총 전입 변화율 최근 3년간 추이(좌 제주시, 우 서귀포시)



☑️ 제주 읍면동별 총 전출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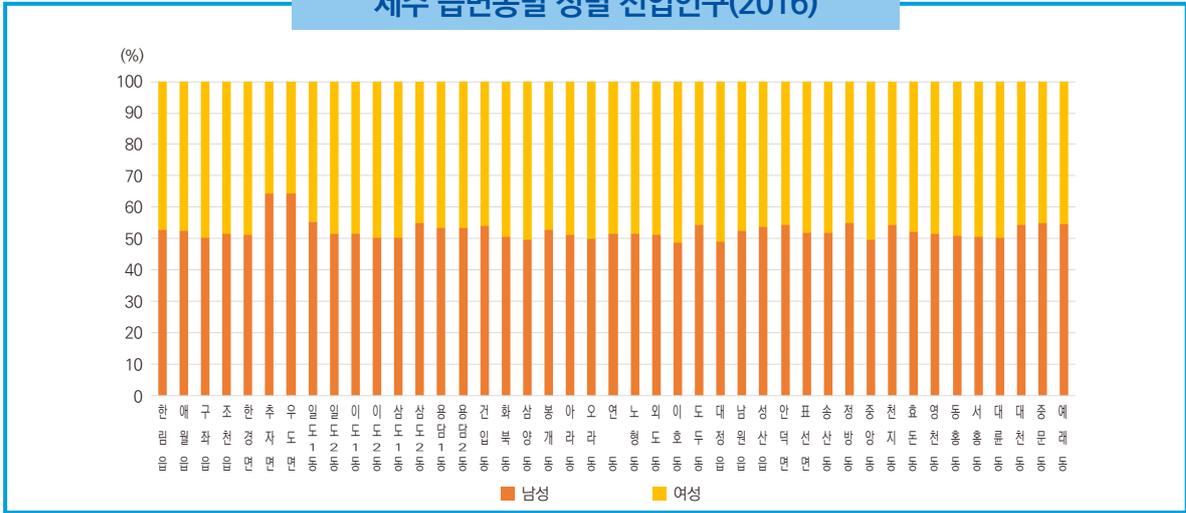
- 제주시의 읍면동별 총 전출 변화율은 2016년 화북동, 오라동, 2014년 한경면이 각각 29.1%, 22.9%, 26.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2015년 추자면, 일도1동, 2014년 일도2동이 각각 -26.5%, -14.4%, -10.7%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총 전출 변화율은 2016년 대천동, 효돈동, 2014년 대천동이 각각 39.3%, 27.4%, 35.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2015년 송산동, 정방동, 2016년 중양동이 각각 -18.3%, -9.7%, -6.9%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 제주 읍면동별 성별 전입인구

- 제주시의 읍면동별 성별 전입인구는 추자면과 우도면의 남성 비율이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성별 전입인구는 중문동과 정방동의 남성 비율이 다른 행정구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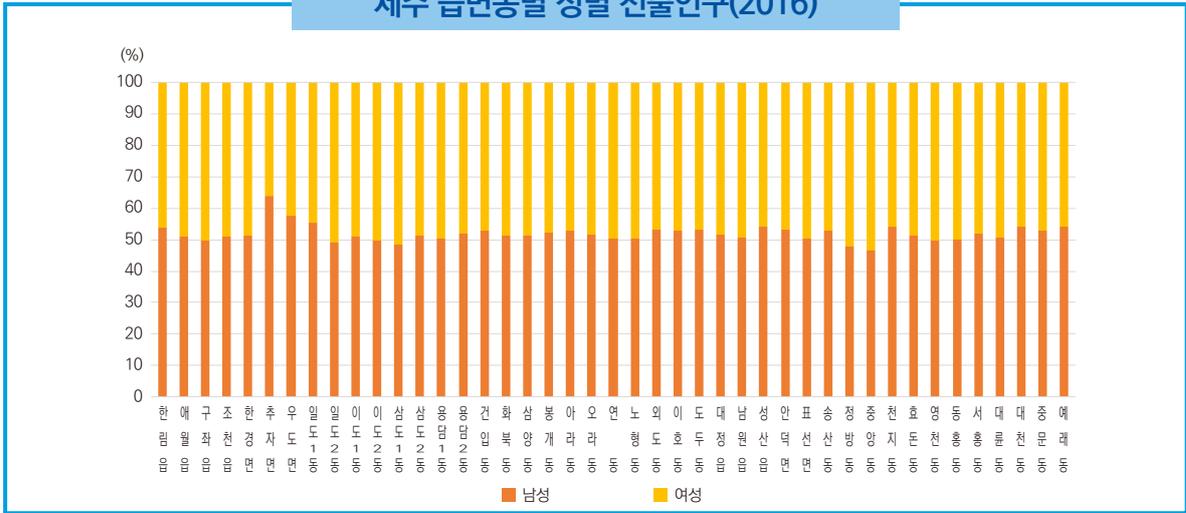
제주 읍면동별 성별 전입인구(2016)



✓ 제주 읍면동별 성별 전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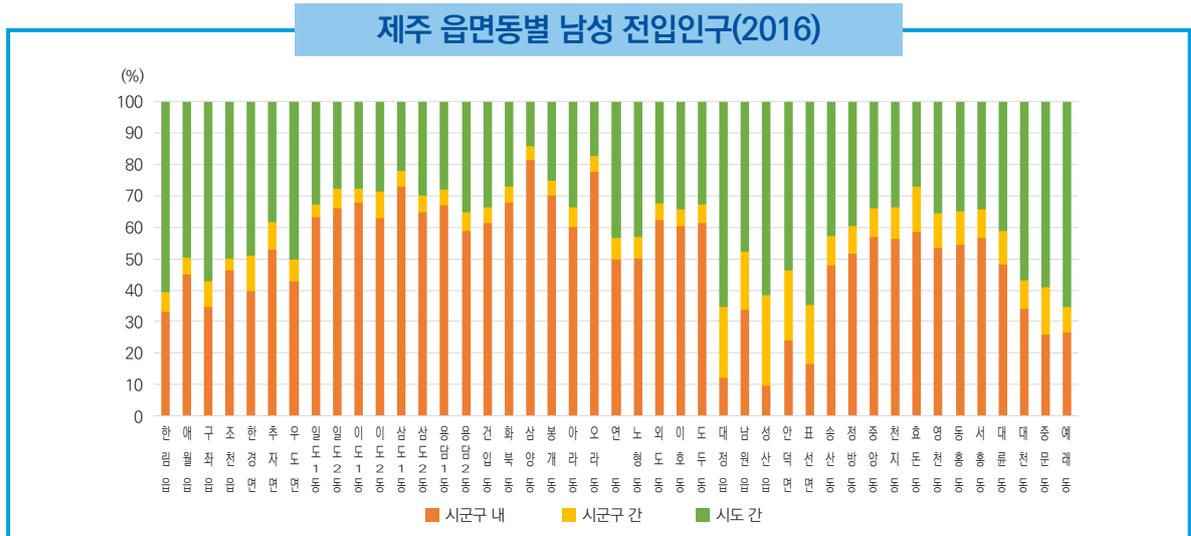
- 제주시의 읍면동별 성별 전출인구는 추자면과 우도면의 남성 비율이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성별 전출인구는 천지동과 대천동의 남성 비율이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 읍면동별 성별 전출인구(2016)



☑ 제주 읍면동별 남성 전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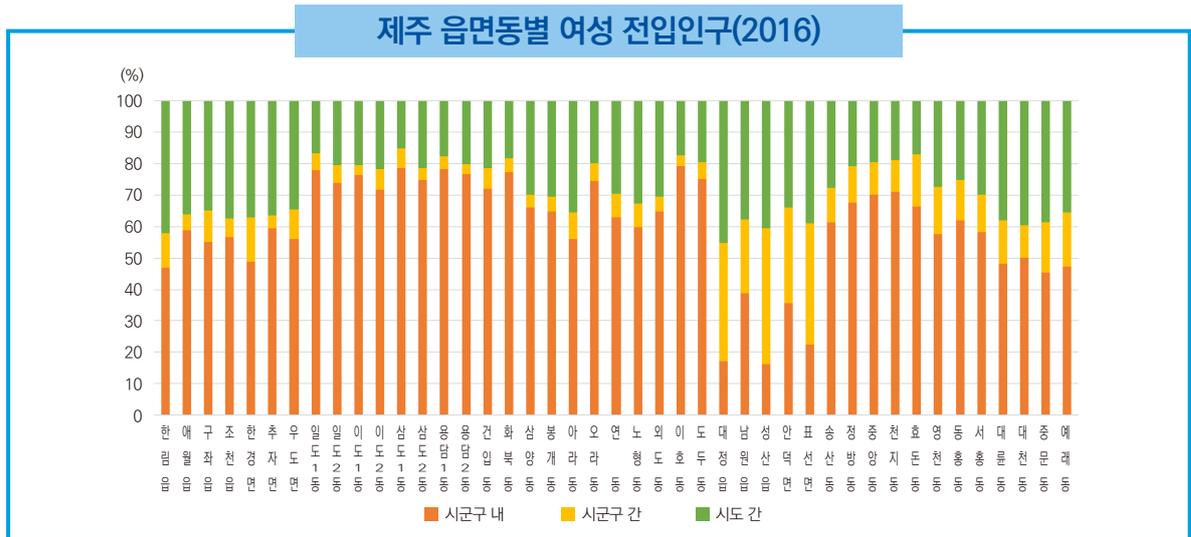
- 제주시의 읍면동별 남성 전입인구 중 시군구 내 남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삼양동과 오라동이 경우 각각 81.4%,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군구 간 남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한경면과 추자면이 각각 11.3%,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간 남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한림읍과 구좌읍이 각각 60.5%, 5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남성 전입인구 중 시군구 내 남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효돈동과 중앙동이 각각 58.5%,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군구 간 남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성산읍과 대정읍이 각각 28.6%,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간 남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대정읍과 예래동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주 읍면동별 여성 전입인구

- 제주시의 읍면동별 여성 전입인구 중 시군구 내 여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이호동과 삼도1동이 각각 79.1%, 7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군구 간 여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한경면과 한림읍이 각각 14.4%,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간 여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한림읍과 조천읍이 각각 42.3%,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여성 전입인구 중 시군구 내 여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천지동과 중앙동이 각각 70.9%,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군구 간 여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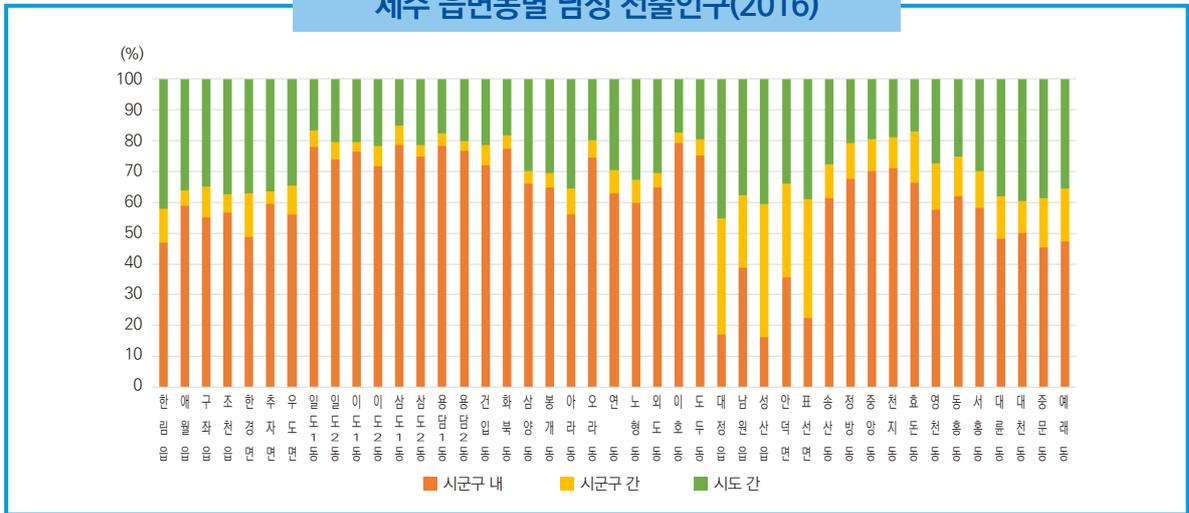
성산읍과 표선면이 각각 43.4%,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간 여성 전입인구의 비중은 대정읍과 성산읍이 각각 45.2%,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주 읍면동별 남성 전출인구

- 제주시의 읍면동별 남성 전출인구 중 시군구 내 남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이호동과 삼도1동이 각각 79.1%, 7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군구 간 남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한경면과 한림읍이 각각 14.4%,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간 남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한림읍, 조천읍이 각각 42.3%,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남성 전출인구 중 시군구 내 남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천지동과 중앙동이 각각 70.9%,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군구 간 남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성산읍과 표선면이 각각 43.4%,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간 남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대정읍과 성산읍이 각각 45.2%,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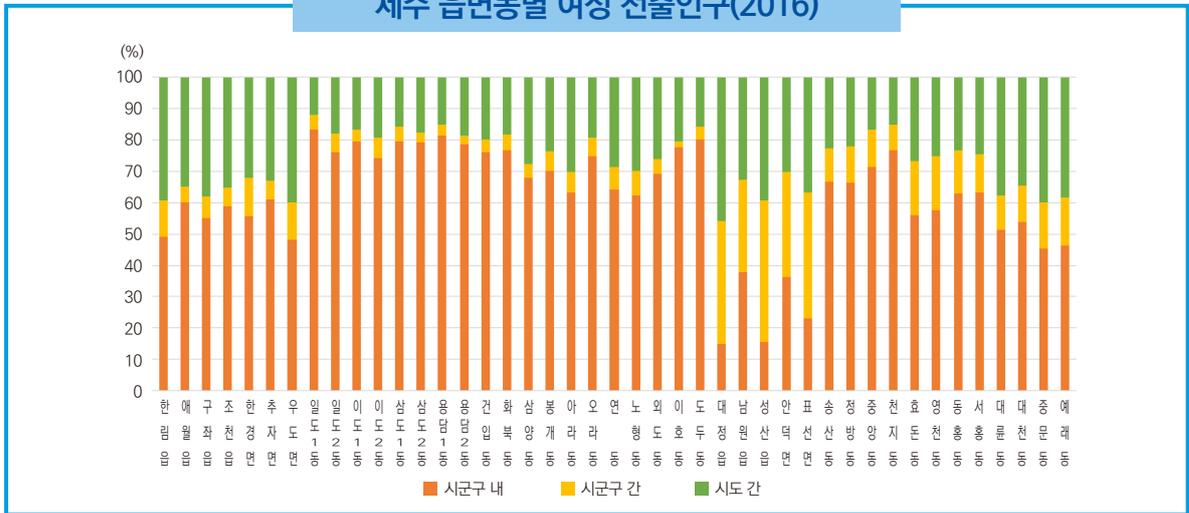
제주 읍면동별 남성 전출인구(2016)



✓ 제주 읍면동별 여성 전출인구

- 제주시의 읍면동별 여성 전출인구 중 시군구 내 여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일도1동과 용담1동이 각각 83.2%,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군구 간 여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한경면, 우도면이 각각 12.2%, 1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간 여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우도면, 한림읍이 각각 39.8%,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여성 전출인구 중 시군구 내 여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천지동과 중앙동이 각각 76.8%, 7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군구 간 여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성산읍과 표선면이 각각 44.9%,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간 여성 전출인구의 비중은 대정읍과 중문동이 각각 45.7%,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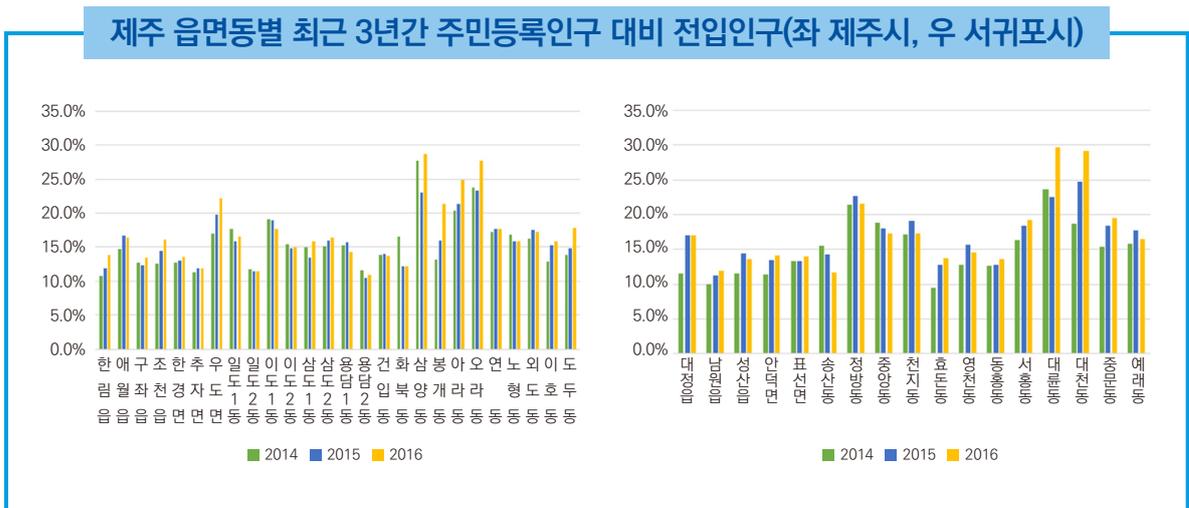
제주 읍면동별 여성 전출인구(2016)



제주 읍면동별 최근 3년간 주민등록인구 대비 전입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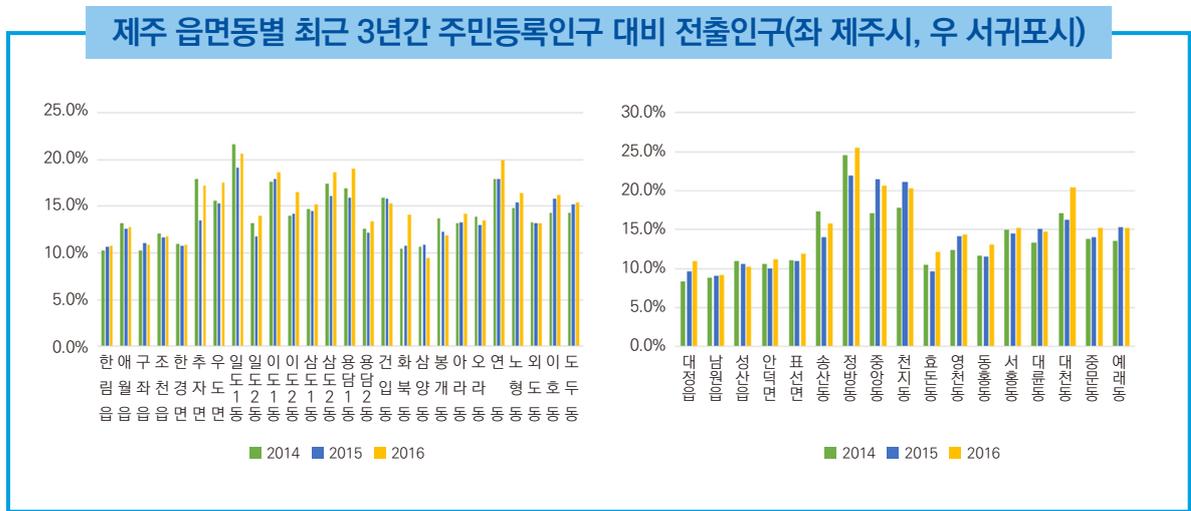
- 제주시의 읍면동별 최근 3년간 주민등록인구 대비 전입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2014년 삼양동 27.7%, 2015년 오라동 23.4%, 2016년 삼양동 28.7%인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최근 3년간 주민등록인구 대비 전입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2014년 대륜동 23.6%, 2015년 대천동 24.7%, 2016년 대륜동 29.7%인 것으로 나타남

제주 읍면동별 최근 3년간 주민등록인구 대비 전입인구(좌 제주시, 우 서귀포시)



☑️ 제주 읍면동별 최근 3년간 주민등록인구 대비 전출인구

- 제주시의 일도1동은 제주시의 읍면동별 최근 3년간 주민등록인구 대비 전출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2014년 21.6%, 2015년 19.1%, 2016년 20.6%를 기록함
- 서귀포시의 정방동은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최근 3년간 주민등록인구 대비 전출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2014년 24.5%, 2015년 21.9%, 2016년 25.5%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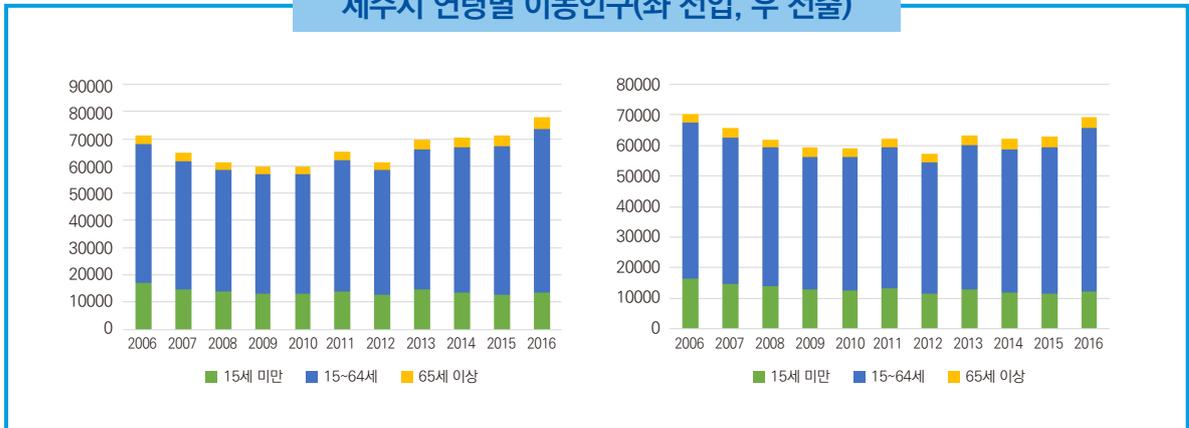


3 연령별 이동현황

☑️ 제주시 연령별 이동인구

- 제주시의 연령별 전입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입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시의 연령별 전출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출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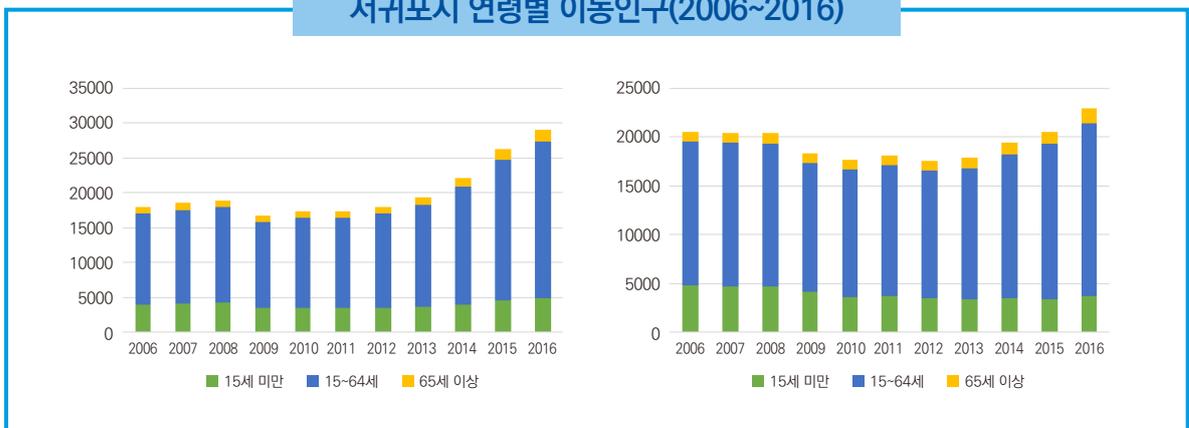
제주시 연령별 이동인구(좌 전입, 우 전출)



서귀포시 연령별 이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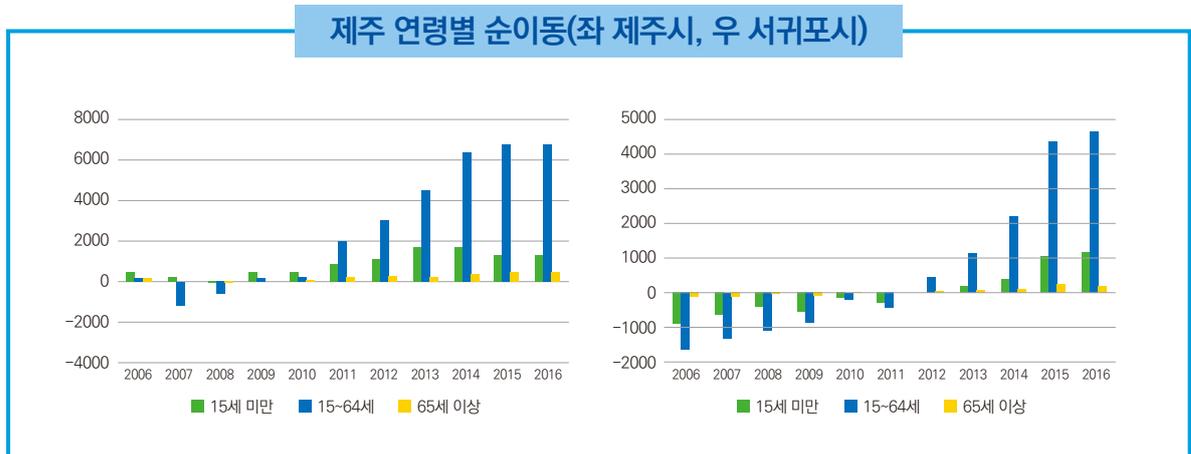
- 서귀포시의 연령별 전입인구는 2016년 기준 15세 미만 17.0%, 15~64세 77.1%, 65세 이상 5.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대비 2016년 15세 미만 전입인구는 감소하였고 15~64세와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연령별 전출인구는 2016년 기준 15세 미만 16.3%, 15~64세 77.3%, 65세 이상 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대비 2016년 15세 미만 전입인구는 감소하였고 15~64세와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서귀포시 연령별 이동인구(2006~2016)



✓ 제주 연령별 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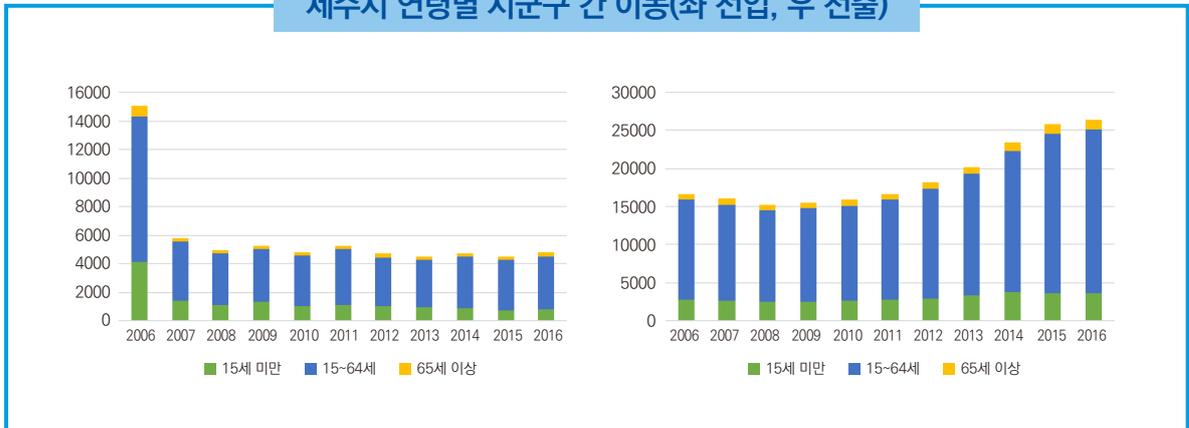
- 제주시의 연령별 순이동자 수는 2006년 15세 미만 396명, 15~64세 127명, 65세 이상 158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15세 미만 1,306명, 15~64세 6,779명, 65세 이상 454명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서귀포시의 연령별 순이동자 수는 2006년 15세 미만 -882명, 15~64세 -1,621명, 65세 이상 -80명에서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6년 15세 미만 1,199명, 15~64세 4,650명, 65세 이상 244명으로 나타남



✓ 제주시 연령별 시군구 간 이동

- 제주시의 연령별 시군구 간 전입인구는 2006년 15세 미만 4,133명, 15~64세 10,206명, 65세 이상 737명에서 2016년 15세 미만 769명, 15~64세 3,746명, 65세 이상 285명으로 나타남
- 제주시의 연령별 시군구 간 전출인구는 2006년 15세 미만 3,344명, 15~64세 8,832명, 65세 이상 659명에서 2016년 15세 미만 715명, 15~64세, 65세 이상 218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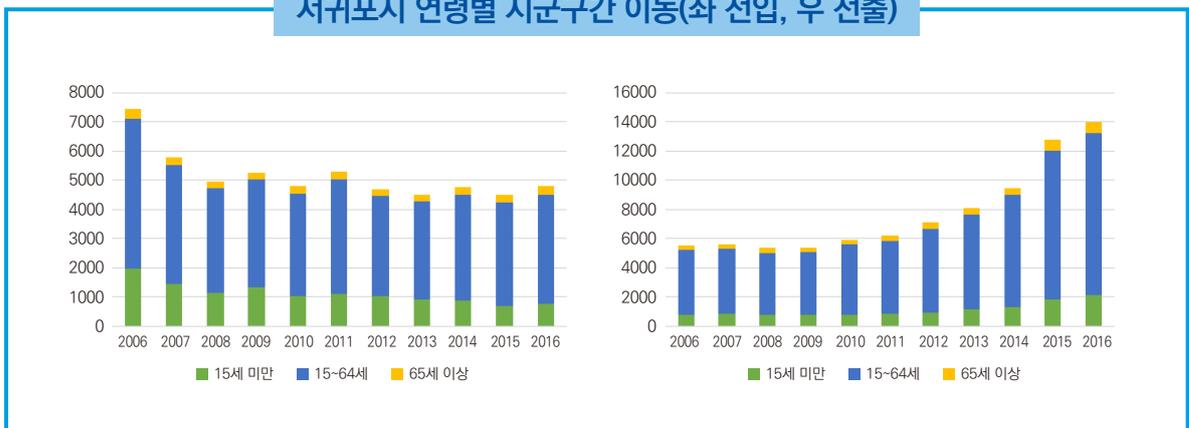
제주시 연령별 시군구 간 이동(좌 전입, 우 전출)



서귀포시 연령별 시군구 간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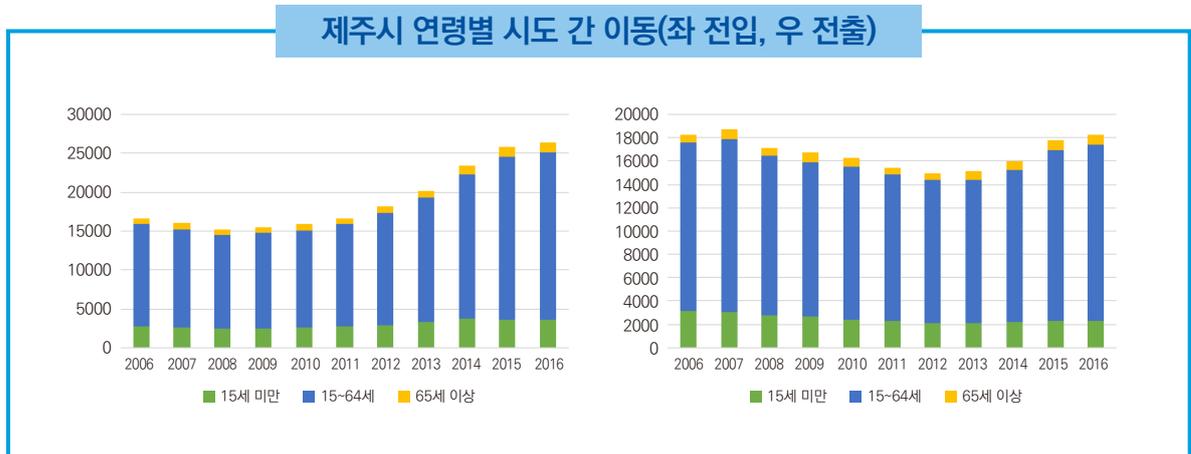
- 서귀포시의 연령별 시군구 간 전입인구는 2006년 15세 미만 1,186명, 15~64세 3,764명, 65세 이상 264명에서 2016년 15세 미만 715명, 15~64세 3,418명, 65세 이상 218명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연령별 시군구 간 전출인구는 2006년 15세 미만 1,975명, 15~64세 5,138명, 65세 이상 342명에서 2016년 15세 미만 769명, 15~64세 3,746명, 65세 이상 285명으로 나타남

서귀포시 연령별 시군구간 이동(좌 전입, 우 전출)



✓ **제주시 연령별 시도 간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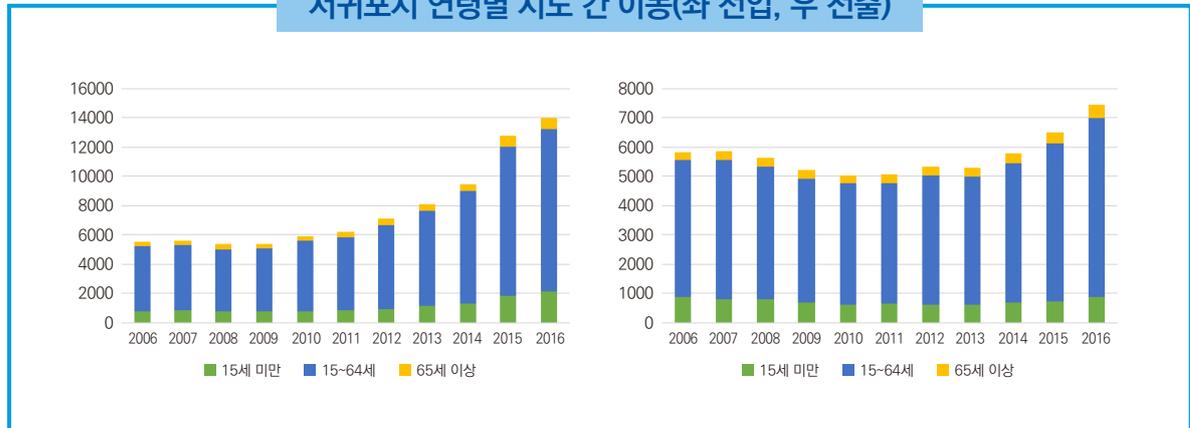
- 제주시의 연령별 시도 간 전입인구는 2006년 15세 미만 2,802명, 15~64세 13,108명, 65세 이상 751명에서 2016년 15세 미만 3,523명, 15~64세 21,616명, 65세 이상 1,235명으로 나타남
- 제주시의 연령별 시도 간 전출인구는 2006년 15세 미만 3,195명, 15~64세 14,355명, 65세 이상 671명에서 2016년 15세 미만 2,271명, 15~64세 15,165명, 65세 이상 848명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연령별 시도 간 이동**

- 서귀포시의 연령별 시도 간 전입인구는 2006년 15세 미만 801명, 15~64세 4,427명, 65세 이상 271명에서 2016년 15세 미만 2,130명, 15~64세 11,110명, 65세 이상 767명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연령별 시도 간 전출인구는 2006년 15세 미만 894명, 15~64세 4,674명, 65세 이상 273명에서 2016년 15세 미만 877명, 15~64세 6,132명, 65세 이상 456명으로 나타남

서귀포시 연령별 시도 간 이동(좌 전입, 우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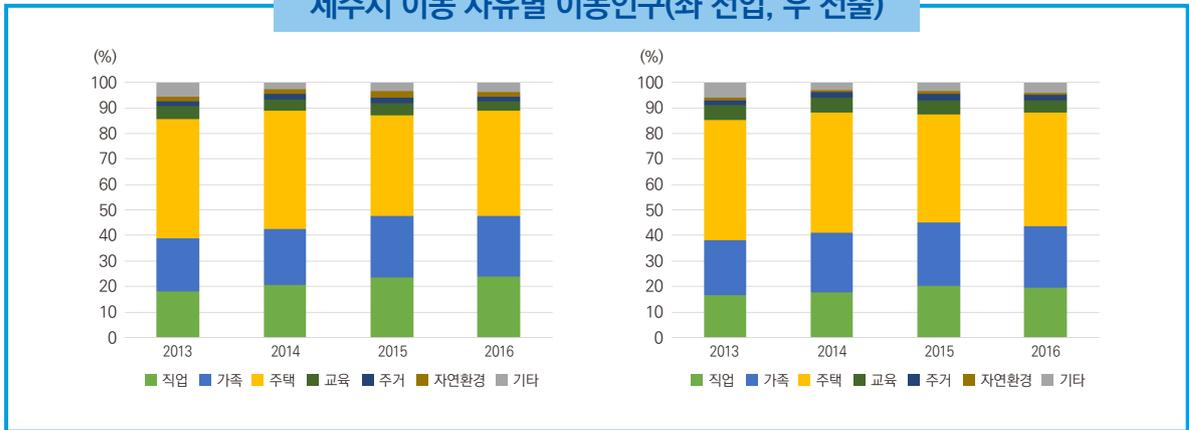


4 이동사유별 이동현황

☑️ 제주시 이동 사유별 이동인구

- 2016년 제주시 전입인구의 이동 사유는 주택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업 24.0%, 가족 23.6%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제주시 전입인구의 이동 사유는 주택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 20.8%, 직업 18.1%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2016년 제주시 전입인구의 이동 사유는 직업이 47.8%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가족 26.9%, 자연환경 23.7%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제주시 전출인구의 이동 사유는 주택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 24.1%, 직업 19.4%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제주시 전출인구의 이동 사유는 주택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 21.5%, 직업 16.6%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2016년 제주시 전출인구의 이동 사유는 직업이 28.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가족 23.3%, 주거 14.8% 순으로 나타남

제주시 이동 사유별 이동인구(좌 전입, 우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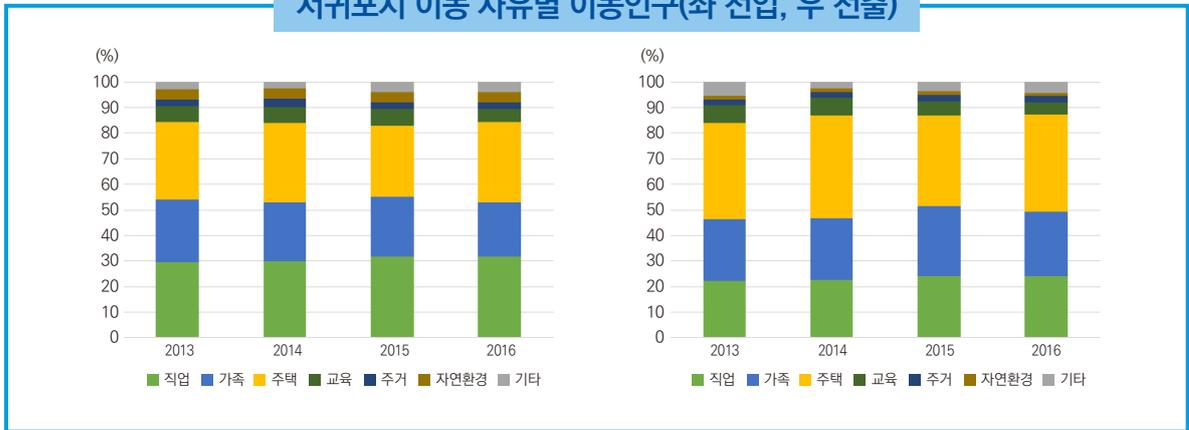
서귀포시 이동 사유별 이동인구

- 2016년 서귀포시 전입인구의 이동 사유는 직업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택 31.4%, 가족 21.4%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서귀포시 전입인구의 이동 사유는 주택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업 29.7%, 가족 24.5%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2016년 서귀포시 전입인구의 이동 사유는 기타가 108.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직업 59.3%, 주택 55.3%, 주거 52.7%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서귀포시 전출인구의 이동 사유는 주택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 35.2%, 직업 24.1%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서귀포시 전출인구의 이동 사유는 주택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 24.0%, 직업 22.4% 순으로 나타남
 - 2013년 대비 2016년 서귀포시 전출인구의 이동 사유는 주거가 48.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직업 38.1%, 가족 34.3% 순으로 나타남

서귀포시 이동 사유별 이동인구(좌 전입, 우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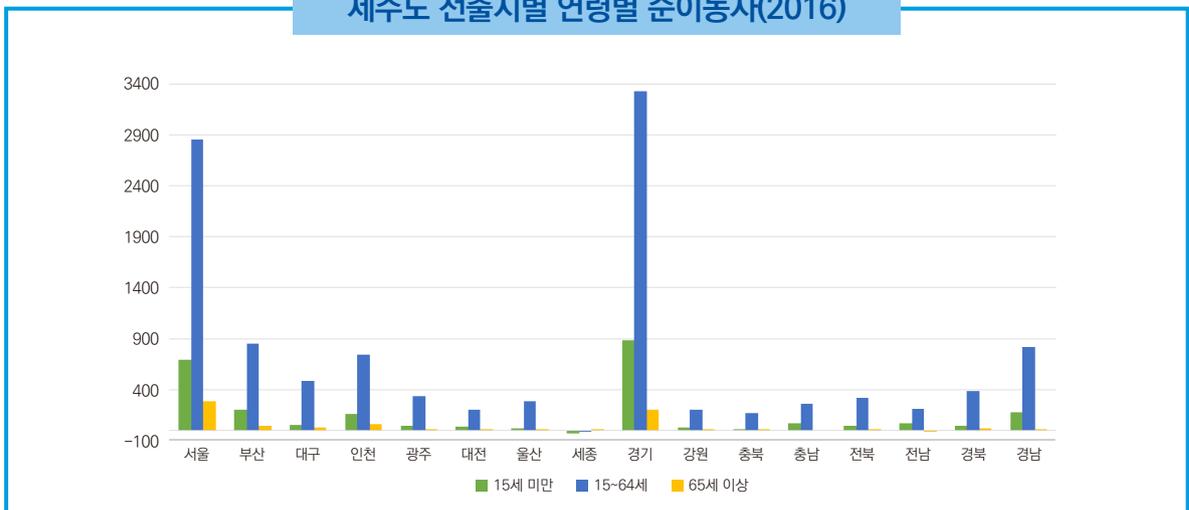


5 전출지별 이동현황

제주도 전출지별 연령별 순이동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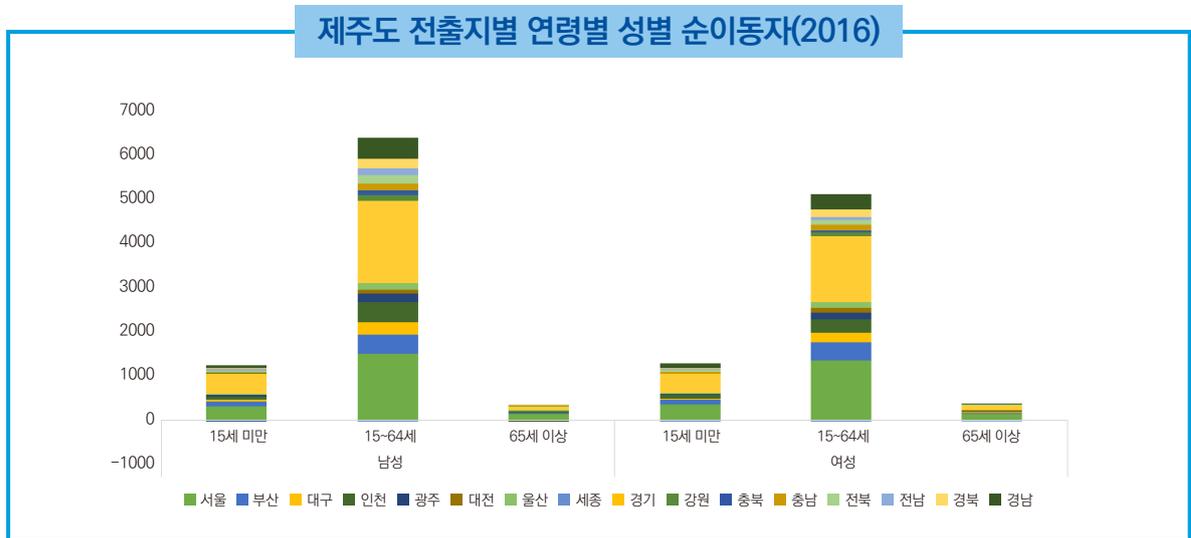
- 2016년 제주도의 전출지별 연령별 순이동자 수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기도의 경우 15세 미만 888명, 15~64세 3,325명, 65세 이상 204명으로 순이동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 순으로 나타남

제주도 전출지별 연령별 순이동자(2016)



✓ 제주도 전출지별 연령별 성별 순이동자 수

- 2016년 제주도의 순이동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순이동자 수 성비는 15세 미만 남성 109%, 15~64세 125%, 65세 이상 85%로 나타나 64세 이하에서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인구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다음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한 지역은 서울과 인천의 15~64세 순이동자 수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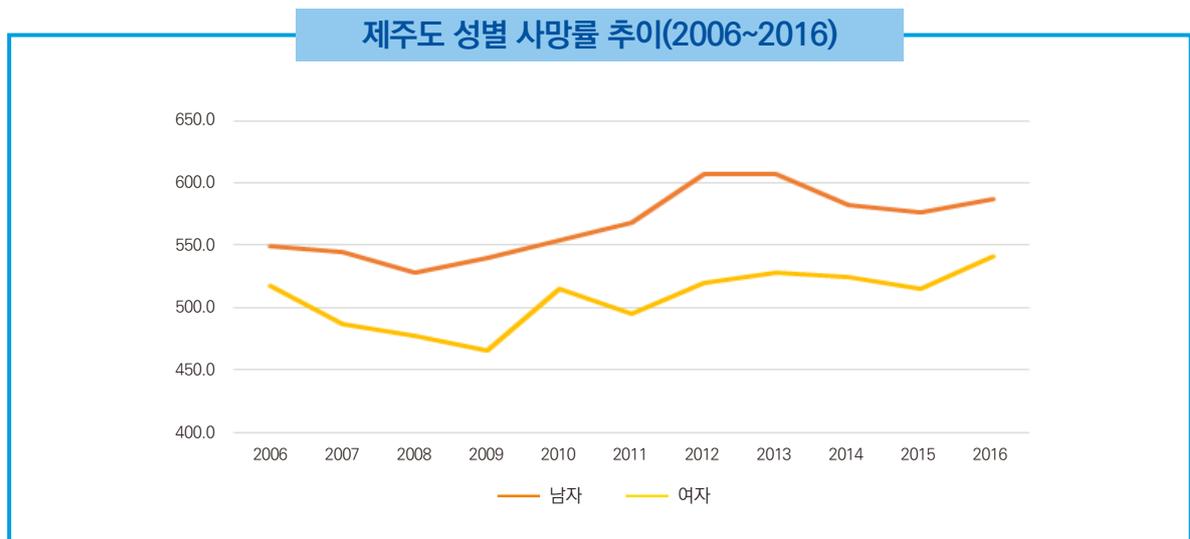


IV. 사망 및 고령화

1 사망 현황

☑ 제주도 성별 사망률 추이(십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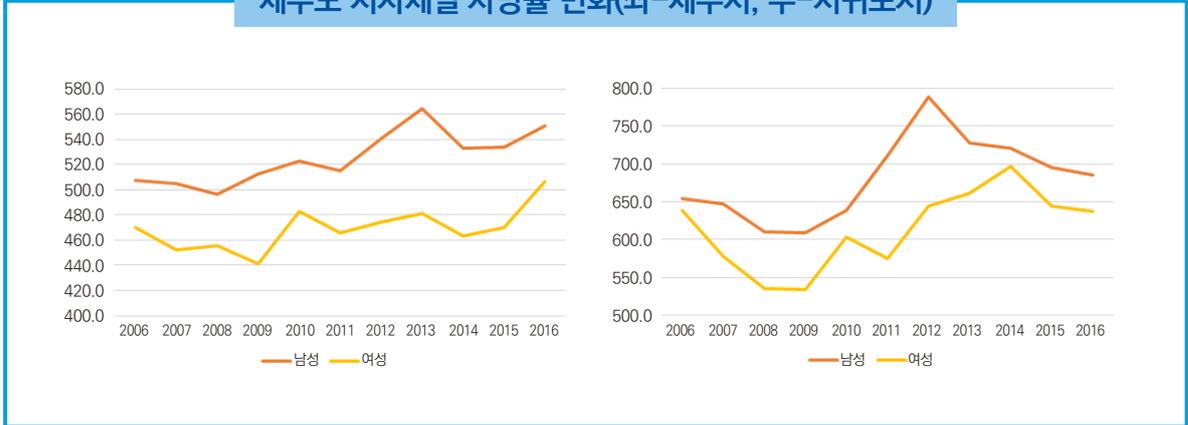
- 제주도 성별 사망률은 2006년 남성 548.9명, 여성 517.1명에서 2016년 남성 586.7명, 여성 541.0명으로 나타나 남성이 6.9%, 여성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 지자체별 사망률 변화(2006~2016)

- 제주시 성별 사망률은 2006년 남성 507.8명, 여성 470.1명에서 2016년 남성 550.7명, 여성 506.5명으로 증가하여 남성이 8.4%, 여성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성별 사망률은 2006년 남성 654.0명, 여성 639.3명에서 2016년 남성 685.8명, 여성 637.6명으로 남성은 4.9% 증가한 데 반해 여성은 -0.3%로 감소 변화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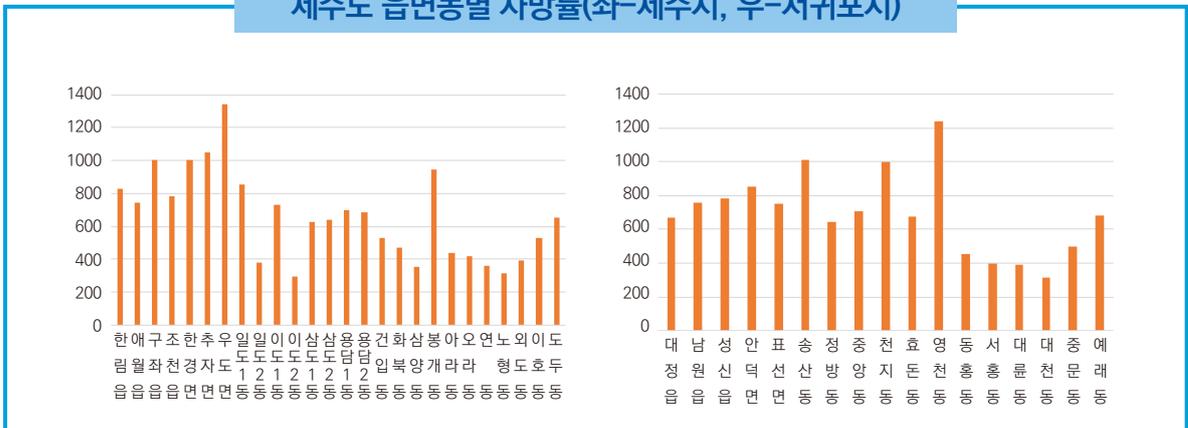
제주도 지자체별 사망률 변화(좌-제주시, 우-서귀포시)



제주도 읍면동별 사망률(십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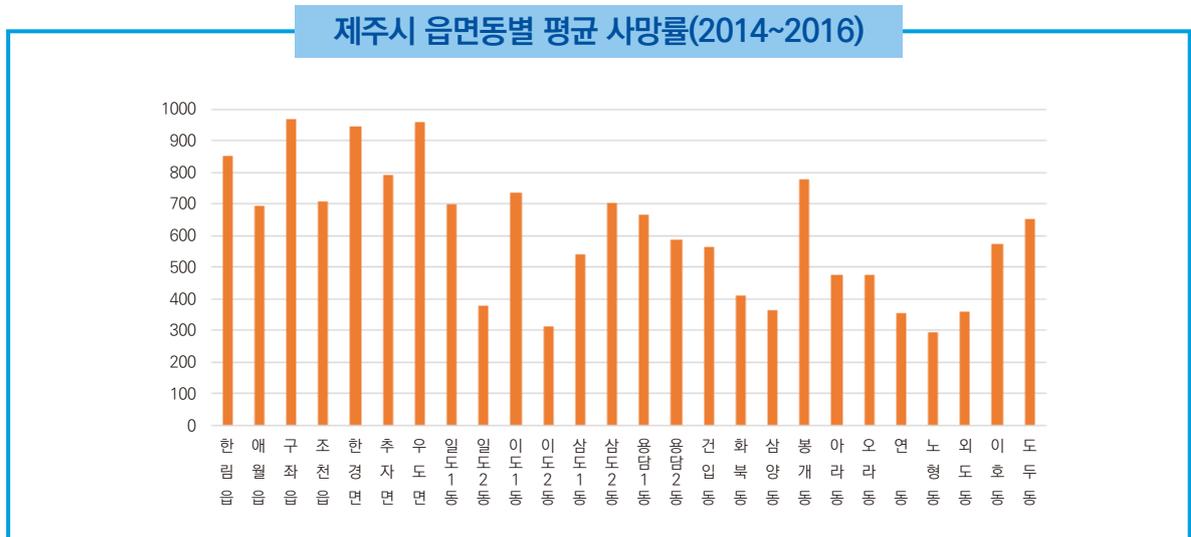
- 2016년 제주시의 인구 십만 명당 사망률은 우도면(1,342명)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추자면(1,049명), 한경면(1,006명)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이도2동(293명)은 제주시 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노형동(314명), 삼양동(352명)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서귀포시의 인구 십만 명당 사망률은 영천동(1,241명)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송산동(1,012명), 천지동(1,001명)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대천동(312명)은 서귀포시 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륜동(392명), 서홍동(399명) 등 순으로 나타남

제주도 읍면동별 사망률(좌-제주시, 우-서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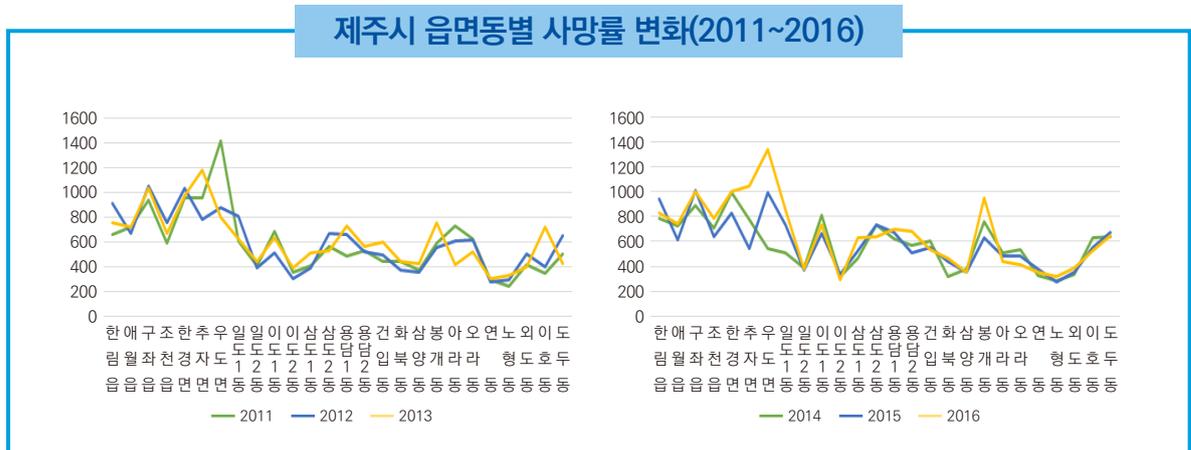
☑️ **제주시 읍면동별 평균 사망률**

- 최근 3년간 제주시의 읍면동별 평균 사망률은 구좌읍(968명)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우도면(961명), 한경면(945명)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노형동(292명)은 제주시 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도2동(314명), 연동(354명) 등 순으로 나타남



☑️ **제주시 읍면동별 사망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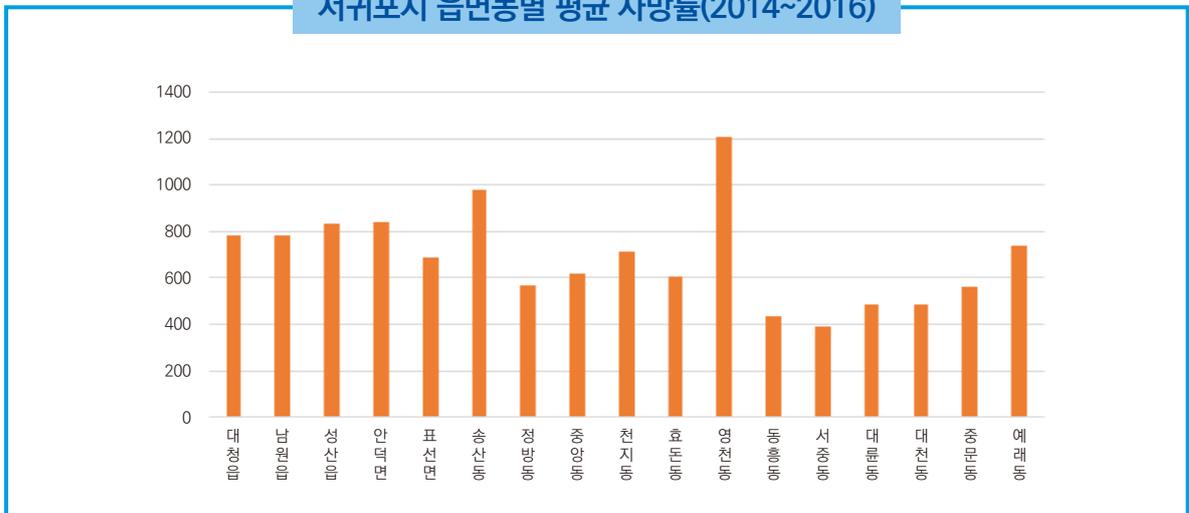
- 제주시 읍면동별 사망률 변화는 2011년 우도면이 1,414명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2016년 우도면 1,342명, 2013년 추자면 1,178명으로 나타남



서귀포시 읍면동별 평균 사망률

- 최근 3년간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평균 사망률은 영천동(1,207명)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송산동(980명), 안덕면(838명) 등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서홍동(388명)은 서귀포시 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고 동홍동(434명), 대륜동(485명)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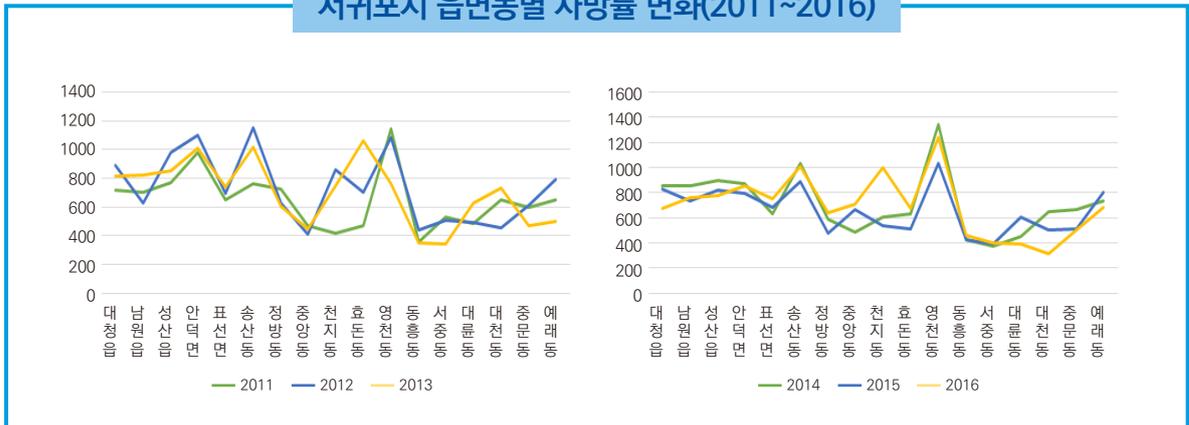
서귀포시 읍면동별 평균 사망률(2014~2016)



서귀포시 읍면동별 사망률 변화

- 서귀포시 읍면동별 사망률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 영천동이 1,346명으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2011년 영천동 1,145명, 2012년 송산동 1,150명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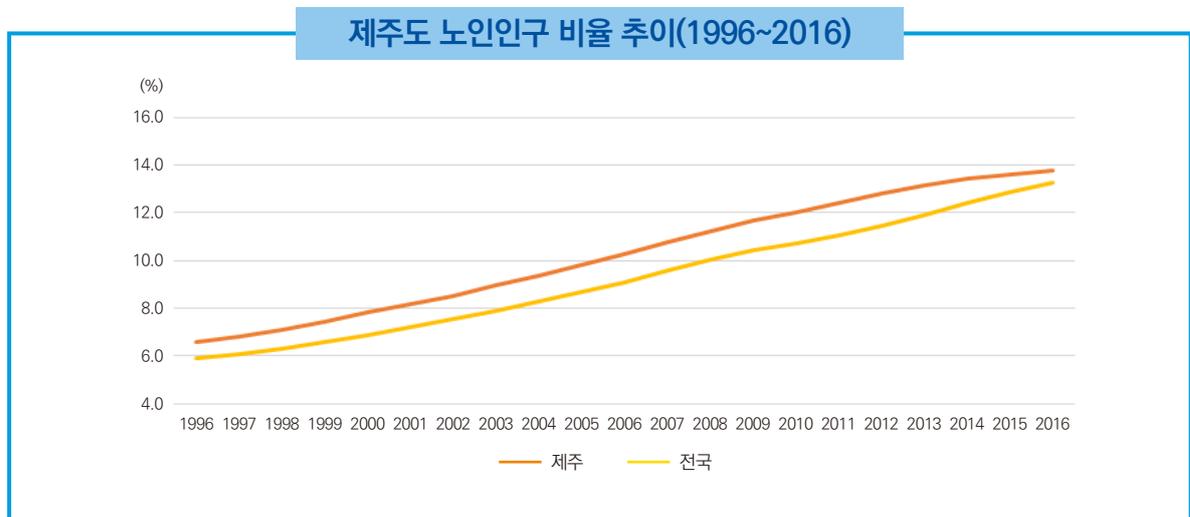
서귀포시 읍면동별 사망률 변화(2011~2016)



2 고령화

✓ 제주도 노인인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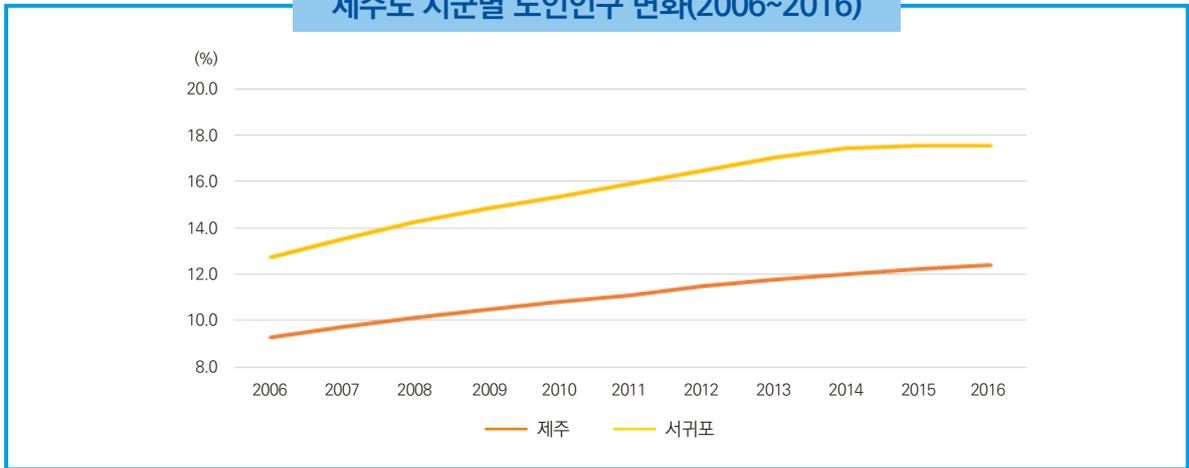
- 제주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1996년 6.6%에서 2016년 13.6%로 증가하였고 전국 평균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



✓ 제주도 시군별 노인인구 비율

- 제주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6년 9.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2016년 12.4%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12.7%에서 2016년 17.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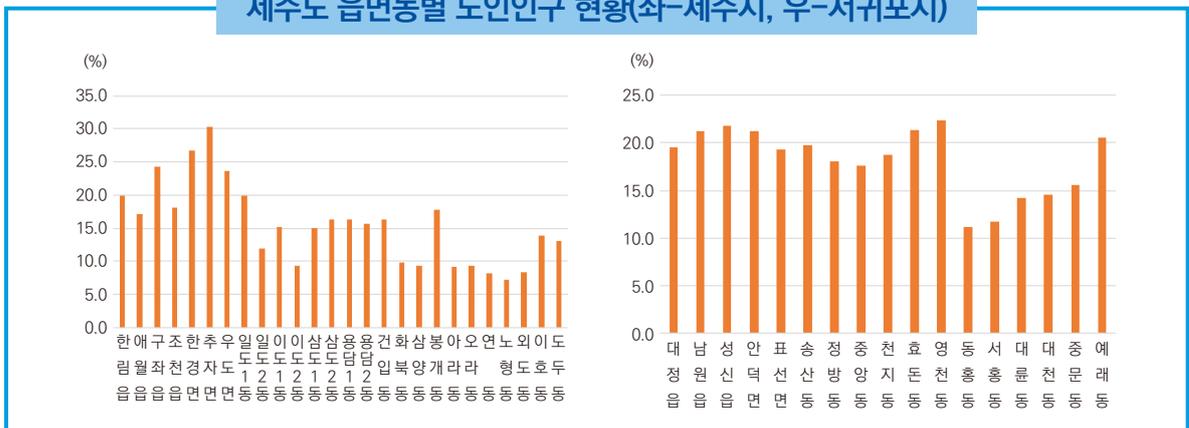
제주도 시군별 노인인구 변화(2006~2016)



☑ 제주도 읍면동별 노인인구 현황(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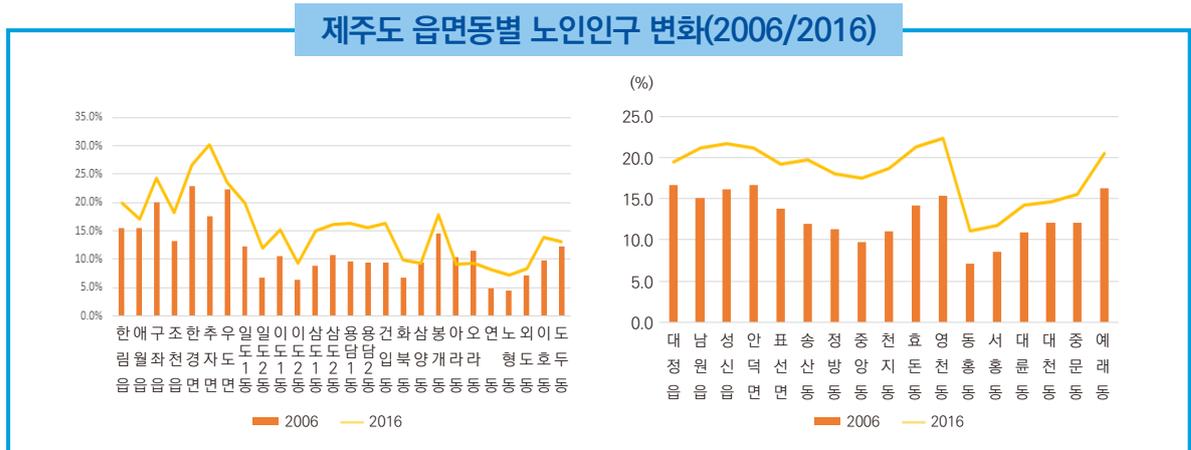
- 제주시 읍면동별 노인인구는 추자면(30.3%)이 제주시 내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 지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경면(26.7%), 구좌읍(24.2%)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노형동(7.2%)은 제주시 내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동(8.1%), 외도동(8.4%) 등 순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읍면동별 노인인구는 영천동(22.4%)이 서귀포시 내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 지역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성산읍(21.8%), 효돈동(21.4%)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동홍동(11.1%)은 서귀포시 내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홍동(11.7%), 대륜동(14.2%) 등 순으로 나타남

제주도 읍면동별 노인인구 현황(좌-제주시, 우-서귀포시)



☑️ **제주도 읍면동별 노인인구 변화**

- 제주시 읍면동별 노인인구 변화는 2006년 대비 2016년 추자면이 17.5%에서 30.3%로 증가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남
 - 반면, 2006년 대비 2016년 오라동은 11.5%에서 9.3%로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 읍면동별 노인인구 변화는 2006년 대비 2016년 중앙동이 9.8%에서 17.6%로 증가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나타남
 - 반면, 2006년 대비 2016년 대정읍은 16.7%에서 19.5%로 증가하여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 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V. 제주도 인구변화 종합

1 인구변화의 경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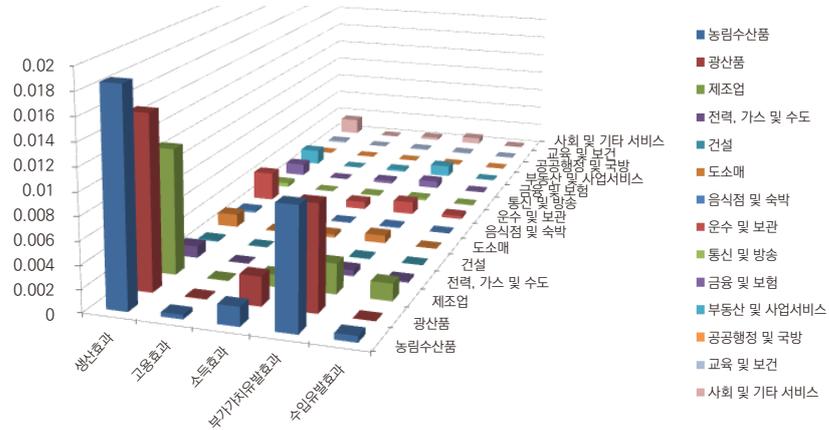
✓ 인구변화는 단순 인구증가 외에 지역별로 인구의 영향 정도가 파급되어 제시

- 인구에 의한 효과는 산업별 효과로 대체가 가능하며, 제주의 인구 산업별 효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14개 산업의 효과로 산출됨
- 14개 산업은 1차 농림어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 산업으로 구성되며, 산업별 효과는 생산효과, 고용효과, 소득효과, 부가가치효과, 수입유발효과로 산출됨
-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은행 2013년 산업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였으며, 인구 증가로 인한 효과는 인구유입으로 인해 1차 농림어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 산업에 1명의 노동자 증가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함

✓ 제주도 1차 산업 1명 인구유입에 따라 약 3.06배의 경제적 효과 창출

- 농림수산물 및 광산물 산업에 인구유입 1명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도는 생산효과는 546만원, 부가적인 고용창출 0.02명, 소득효과 73만 원, 부가가치효과 273만 원 유발
- 특히,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연동되어 발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간 유발효과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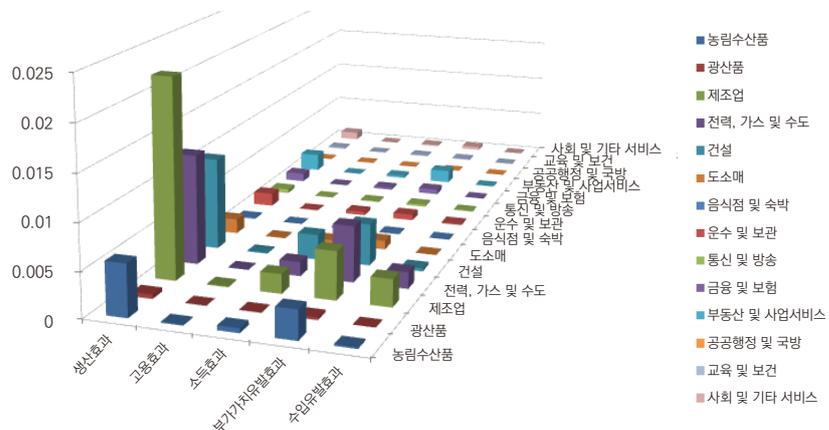
제주도 인구이동으로 인한 1차 산업의 파급효과



✓ 제주도 2차 산업 1명 인구유입에 따라 약 3.26배의 경제적 효과 창출

- 제조업, 전력·가스·수도·사업, 건설 산업에 인구유입 1명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도는 생산 효과는 590만원, 부가적인 고용창출 0.016명, 소득효과 88만 원, 부가가치효과 243만 원 유발
- 특히, 2차 산업 외에 1차 산업이 연동되어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 제조업은 1차 산업 근간으로 발전되어 산업간 연계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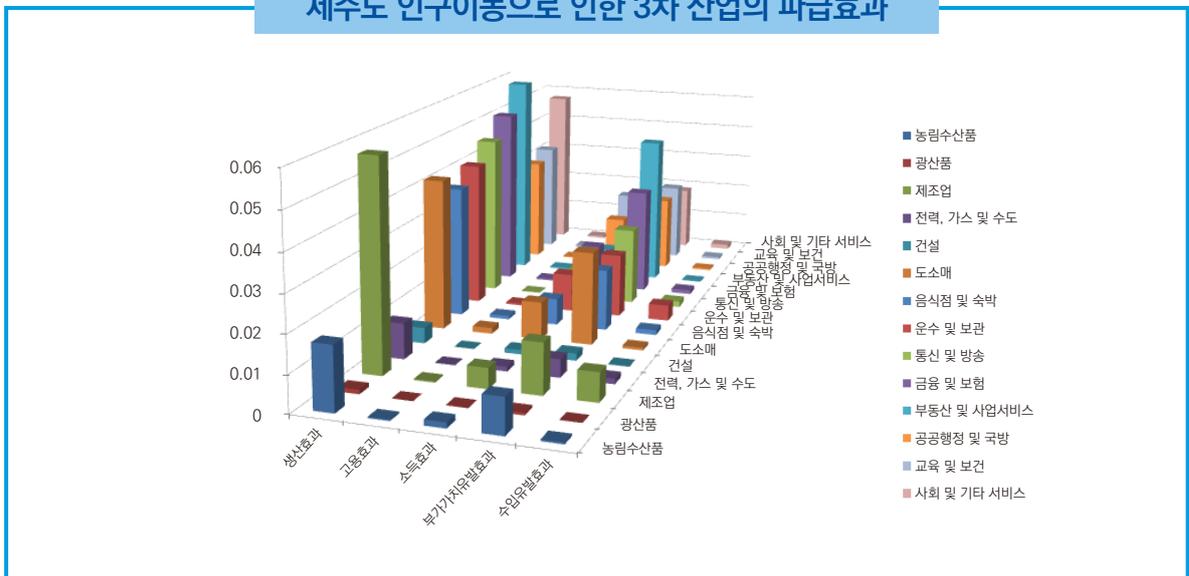
제주도 인구이동으로 인한 2차 산업의 파급효과



✓ 제주도 3차 산업 1명 인구유입에 따라 약 28.3배의 경제적 효과 창출

-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업, 부동산 및 사회사업 등 3차 서비스 산업에 인구유입 1명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도는 생산효과는 4,736만 원, 부가적인 고용창출 0.21명, 소득효과 1,072만 원, 부가가치효과 2,481만 원 유발
- 따라서, 제주도의 산업 발전 및 소득 창출은 3차 산업에 의해 유발되며, 1명 인구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 28배 이상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됨
- 더불어, 인구 1명 유입당 제주도에 생산되는 노동자 증가가 0.21명으로 약 21%의 노동자 증가가 견인되는 부가적인 효과가 나타남
- 또한, 3차 산업에 대한 인구유입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제주도에 대한 인구이동 증가는 제주도 발전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분석됨

제주도 인구이동으로 인한 3차 산업의 파급효과



2 종합

✓ 감소 예정의 총인구 변화

- 제주도의 총인구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시는 2006년 대비 2016년 약 17%, 서귀포시는 약 10% 증가하여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통계청 기준 2043년까지의 제주도의 인구는 증가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만, 2045년부터 인구 성장은 하향세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동 인구 차이 변화

- 제주시의 읍면동별 인구는 2016년 기준 노형동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우도면의 인구가 가장 적어 인구 차이가 51,7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귀포시의 읍면동별 인구는 2016년 기준 동홍동의 인구가 22,806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반면, 정방동의 인구가 2,641명으로 20,165명 인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제주시 인구 차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르게 인구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

✓ 감소추세의 합계출산율 변화

- 제주도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현재 1,432명으로 1996년 1,782명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제주시는 1,435명, 서귀포시는 1,422명으로 제주시의 합계출산율이 감소한 반면 서귀포시는 소폭 증가함
- 특히, 제주시 추자면의 연내 출생 건수가 2명, 서귀포시 정방동이 12명으로 제주도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나타남
- 더불어 제주시 추자면은 2007년 대비 2016년 출생 건수가 -90%, 서귀포시 송산동은 -49%로 출생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혼인율 감소 및 만혼 증가세

-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혼에 대한 근거로 제주도의 혼인율은 1996년 20대 혼인율이 천 명당 99.2명에서 2016년 68.1명으로 크게 감소함

- 반면, 30대 초반 여성 혼인율은 1996년 대비 2016년 47.6명으로 약 3배 증가함으로써 제주도의 결혼에 대한 만혼 추세가 나타남

✓ 순이동 증가로 인한 인구 증가

- 제주도의 인구이동은 2009년 이후 총 전입인구가 총 전출인구를 상회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6년 서울과 경기에서의 제주도 전입인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순이동률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의 인구 증가에 기여함
- 이중 최근 3년 순이동률은 제주시 삼양동이 16.2%, 서귀포시 대륜동이 10.9%로 제주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지역으로 나타남

✓ 제주시 사망률 증가에 반한 서귀포시 사망률 감소

- 제주도의 2006년 대비 2016년 사망률은 남성이 6.9%, 여성이 4.6%로 점진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하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제주시의 사망률 감소에 비해 서귀포시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서귀포시의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나타남
- 특히,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제주시의 사망률 변화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서귀포시의 사망률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함

✓ 고령 인구이동으로 인한 고령화 증가

- 제주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6년 13.6%로 1996년 6.6% 대비 7%p 증가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귀포시의 낮은 사망률로 인해 고령화가 진전되었으며, 인구이동이 상대적으로 제주시에 비해 많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진전된 것은 고령층의 인구이동이 많은 것을 유추해볼 수 있음

✓ 인구이동으로 인한 부가적인 효과 창출

- 제주도의 인구이동은 최소 3배, 최대 28배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제주도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제주도 경제성장은 전 산업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3차 서비스 산업으로의 인구유입은 제주도의 1차 및 2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인구유입으로 인해 제주도의 산업 연계가 활성화될 경우 유입인구 1명당 21%의 노동자 증가 및 약 28배의 경제적 효과(생산효과 15.7배, 소득효과 3.5배, 부가가치효과 8.2배, 수입유발효과 0.72배)가 유발됨

정책이슈리포트

